

리아호나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12쪽

마음의 선물, 26쪽

크리스마스란 무엇입니까
친4쪽



“**베** 들레헴에서 아기의 탄생과 함께 위대한
선물, 무기보다도 강한 권세, 가이사의
동전보다도 더 오래가는 부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약속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성탄절 선물”, 2쪽 참조.



23992 320

리아호나



표지
앞: 어머니와 아이, 제이 커크 리차즈. 뒤: 사진 촬영 크리스티나 스미스



친구들 표지
사이먼 듀이 그림, Altus Fine Art, American Fork, Utah 제공



“복원된 커틀랜드”
참조, 32쪽

일반

- 1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 2 대관장단 메시지: 성탄절 선물
토마스 에스 문슨 부대관장
- 12 복음 고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
- 18 쌀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 25 방문 교육 메시지: 검소하게 생활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냄으로써 준비합시다
- 29 예수님의 비유들: “나는 참포도나무요” 안토니 알 템플 장로
- 32 복원된 커틀랜드
- 40 말일성도의 소리
어느 목사와 함께한 성탄절 블레인 케이 게링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어라!” 셸리아 아우구스토 데 수자
트릭 운전사의 선물 노르마 제이 브로드헤드
- 48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활용하기

청소년

- 6 가정에서 만드는 성탄절 진 알 쿡 장로
- 10 열 가지 너에 대해 사랑하는 것
로이즈 주를리겐 조르겐센
- 24 견줄 곳이 없는 성스러운 집 엠마 워더즈
- 26 질의 응답: 성탄절에 가족에게 줄 만한 선물로서 가게에서 사는 물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 44 계절에 구매 받지 않는 선물 다윈 비 크리스티슨 장로
- 47 알고 계십니까?

친구들

- 2 세상의 빛: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 4 함께 나누는 시간: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비키 에프 마쭈모리
- 6 닐스의 침대 다이앤 엘 맨검
- 8 함께 나누는 시간 강림절 달력: 크리스마스란 무엇입니까?
- 10 신약전서 이야기: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바울
- 15 특별한 증인: 하나님의 증인이 됩시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 16 성전 카드



“닐스의 침대”
친6쪽 참조



키틀랜드 성전 건축, 윌터 데인

1832년 말과 1833년 초에 주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 (교리와 성약 88:119)라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1833년 6월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집을 지을 다음은 나의 뜻이니라. 너희가 나의 계명을 지키면 너희는 집 지을 능력을 얻게 되리라.” (교리와 성약 95:11)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제12호
23992 320

리아호나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공식적인 잡지임

대관장단: 고든 비 힝클리, 토마스 에스 몬슨, 제임스 이 파우스트

심이사도 장원회: 보이드 케이 파커, 엘 톨 페리, 데이비드 비 헤이트, 닐 에이 맥스웰, 라셀 앤 넬슨, 달린 에이치 옥스, 엠 라셀 벨라드, 조셉 비 워스킨, 리처드 지 스코트, 로버트 디 헤일즈, 제프리 알 홀런드, 헨리 비 아이어링

편집인: 데니스 비 노인슈타인
고문: 이 레이 베이트먼, 몬티 제이 브러프, 제이 이 젠슨, 스티븐 에이 웨스트

관리 책임자: 데이비드 프리스네흐트
기획 및 편집 책임자: 빅터 디 케이브
그래픽 책임자: 앨런 알 로이보그

잡지 편집 책임자: 리처드 엠 롭니
관리 편집인: 마빈 케이 가드너
편집 스태프: 클러트 네베커 오운, 수잔 브렛, 라이언 카, 린다 스티븐 쿠퍼, 라렌 포터 곤트, 샤나 가즈나비, 제니퍼 엘 그린우드, 리사 앤 잭슨, 캐리 카스텐, 앨빈 레딕, 셸리 제이 오데커크, 애덤 시 울슨, 주디스 엠 팔러, 레베카 엠 테일러, 로저 테리, 재닛 토마스, 폴 벤덴버그, 줄리 와델, 캄벌리 웹, 모니카 엑스

관리 미술 책임자: 엠 엠 가와사키
미술 책임자: 스코트 밴 캄펜
제작 부장: 제인 앤 피터스
디자인 및 제작 스태프: 켈리 알렉 프랫, 페이 피 앤드러스, 시 김블 보트, 하워드 지 브라운, 토마스 에스 차일드, 레지널드 제이 크리스티슨, 브렌트 크리스티슨, 케리 린 시 헤인, 캐서린 하워드, 데니스 커버, 타드 알 피터슨, 랜달 제이 픽스톤, 마크 더블류 로비슨, 브래드 키어, 캐리 에이 토드, 클라우디아 이 워너

마케팅 부장: 래리 힐러
인쇄 책임자: 크레이그 케이 세지워크
배부 책임자: 크리스 티 크리스티슨

동 권: 제 453호, 제40권, 제 12호
등 록: 1967년 10월 4일, 라-3166
발행일: 2003년 12월 1일(월간지)
발행인: 최윤환
편집인: 홍무광
발행소: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서울특별시 중로구 청운동 7번지

인쇄인: 주시회사 보진재 감정선
리아호나 1년 구독료는 5,000원이며 권당 가격은 500원입니다. 리아호나를 해외 구독할 경우 항공 우편료는 1지역(일본, 중국, 대만, 홍콩) 27,000원, 2지역(동남아시아) 30,600원, 3지역(북미, 유럽, 중동, 호주) 36,000원, 4지역(아프리카, 중남미, 남태평양) 54,000원이며 독자가 부담하셔야 합니다.
주소 변경이 있을 때에는 소속 와드지부와 변경된 주소를 배부과 ☎ 02-2232-1441, 교환 452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와 문의 사항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또는 E-mail, cur-liahona-imag@ldschurch.org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국제판 잡지인 본 잡지는 한국어 외에 다음 언어로 출판됨.

알바니아어, 아르메니아어, 불가리아어, 캄보디아어, 세부어, 중국어, 크로아티아어, 체코어,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영어, 에스토니아어, 피지어, 핀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 히타이어, 헝가리어, 아이슬란드어, 인도네시아어, 이탈리아어, 일본어, 키리바시어, 라트비아어, 리투아니아어, 마다가스카르어, 마살어, 몽골어, 노르웨이어, 폴란드어, 포르투갈어, 루마니아어, 러시아어, 사모아어, 슬로베니아어, 스페인어, 스웨덴어, 타갈로그어, 타히티어, 터미어, 벨루구어, 타이어, 통가어, 우크라이나어, 베트남어 (언어에 따라 발행 횟수는 다름함)
© 2003 by Intellectual Reserve, Inc. All rights reserved. Printed in Korea.

December 2003 No. 12. LIAHONA(USPS 311-480) Korean (ISSN 1044-3444) is published monthly by The Church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50 East North Temple, Salt Lake City, UT 84150, USA subscription price is \$10.00 per year; Canada, \$15.50 plus applicable taxes. Periodicals Postage Paid at Salt Lake City, Utah. Sixty days' notice required for change of address. Include address label from a recent issue; old and new address *must* be included. Send USA and Canadian subscriptions and queri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at address below. Subscription help line: 1-800-537-5971. Credit card orders (Visa, Master Card, American Express) may be taken by phone.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s to Salt Lake Distribution Center, Church Magazines, PO Box 26368, Salt Lake City, UT 84126-0368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이 성스러운 절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기적적인 탄생을 하셨다는 것을 재확인하는 바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이제까지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 중 유일하게 완전한 분이셨음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들”(사도행전 10:38) 행하셨으며 “와서 나를 따르라”(누가복음 18:22)고 모든 사람들을 손짓하여 부르고 계십니다.

인류를 자비와 친절의 미덕으로 이끄는 것은 그분의 성스러운 영향력입니다. “우리의 짐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해신”(이사야 53:4) 그분은 우리도 그분과 같이 사랑을 지니고 가난하고 외롭고 학대 받는 사람들에게 다가서도록 영감을 주십니다.

이 성탄절기에 갈릴리 바다의 비바람을 잠잠하게 하신 평강의 왕께서 우리 개인의 삶에 이는 폭풍 역시 가라앉게 할 권세를 지니고 계심을 상기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길을 따르고자 노력함으로써 다가오는 한 해 동안에도 그분의 평안이 우리 가슴과 가정에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



위: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는 그리스도, 로버트 티 배렛; 오른쪽 위: 예수의 탄생 일부, 칼 하인리히 블로흐, 국립 역사 박물관, 덴마크 힐러로드 프레데릭스보르 소재

성탄절 선물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물 문경 니파이삼서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머리를 들고 기뻐하라. 보라 때가 가까왔음이라. 오늘 밤으로 표적이 보일 것이요, 내일은 내가 이 세상에 내려와, 내가 나의 성스러운 선지자들로 세상에 전하게 한 말을 이루어 보이리로다.”¹

베들레헴에서 아기의 탄생과 함께 위대한 선물, 무기보다도 강한 권세, 가이사의 동전보다도 더 오래가는 부가 나타났습니다. 이 아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약속된 메시아,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구유를 요람 삼아 마구간에서 태어나신 그분은 필멸의 인간으로 지상에서 사시기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기 위해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지상에서의 성역 기간 동안에 그분은 보다 높은 율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분의 영화로운 복음은 세상의 사고 방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분은 병자를 축복하셨습니다. 그분은 다리를 절단한 사람이 걷고, 보지 못하던 사람이 보고, 듣지 못하던 사람이 듣게 하셨습니다. 심지어 그분은 죽은 자도 다시 살리셨습니다.

자비에 찬 그분의 메시지, 그분의 지혜로운 말씀, 생명에 관한 그분의 교훈에 대한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그분께 감사드렸던 사람은 지극히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발을 씻어드렸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모범을 따랐습니다.

시간이 흘러 여러 세대가 지나면서도 예수께서 주신 메시지는 늘 같았습니다. 아름다운 갈릴리 해변에서 그분은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² 고대의 빌립에게도 “나를 따르라”는 부름이 왔습니다.³ 세관의 수납대에 앉아 있던 레위에게도 “나를 따르라”는 지침이 왔습니다.⁴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도,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나를 따르라”고 하시는 그분의 똑같은 권유가 들려 올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분의 자취를 따를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의 삶을 축복할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라고 권유하십니다.⁵

우리 자신을 내줄 기회는 참으로 무한합니다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기쁘게 해 주어야 할 마음이 있습니다. 전해야 할 친절한 말도 있습니다. 주어야 할 선물도 있습니다. 실천해야 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구원 받아야 할 영혼도 있습니다. “가서 외롭고 울적해 하는 사람을 즐겁게 해 주십시오. 가서 울고 지쳐 있는 사람을 위로해 주십시오. 가서 친절한 행동을 매일 베풀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세상을 보다 밝게 만들어 주십시오!”⁶

지혜로운 한 그리스도교인은 “성탄절을 소비해 버리지 않고 고이 간직하기를 기원합니다.”라고 주장한 적이 있습니다.⁷ 성탄절의 정신을 간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성탄절의 정신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입니다.

예 수님은 “보라, 주는 진심을 구하시며 가까이 하고자 하는 마음을 요구하시나니”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내주라고 권유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내줄 기회는 참으로 무한합니다만,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그 기회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제일 좋아하는 성탄절 이야기

이 절기에 저의 가족은 제가 좋아하는 성탄절 이야기들을 읽고 저자들의 훌륭한 말씀을 숙고합니다. 우리는 먼저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성탄절 이야기를 읽습니다. 다음으로 찰스 디킨스가 쓴 *크리스마스 캐럴(A Christmas Carol)*을 읽고, 마지막으로 헨리 반다이크가 쓴 *맨션(The Mansion)*을 읽습니다.

이 영감 받은 책들을 읽을 때 저는 늘 눈물을 닦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 영혼을 어루만져 줍니다. 그것은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찰스 디킨스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성탄절이 돌아올 때마다 이 때가 좋은 때라고 늘 생각해 왔습니다. 친절하고, 용서하고, 자비를 베푸는 즐거운 시간입니다. 일 년 중 남자나 여자가 닫혀진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모두 한마음이 되어 자신들보다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부류로 여기지 않고 무덤까지 함께 갈 동료처럼 생각하는, 내가 아는 유일한 때입니다.”⁸

디킨스의 명저 *크리스마스 캐럴*에서 마음을 완전히 선하게 돌이킨 에벤네저 스크루지는 마지막에 이렇게 외칩니다. “나는 성탄절을 마음에 소중히 간직하여 일 년 내내 지키려고 노력할 거야. 난 과거, 현재, 미래를 살아갈 거야. 이 세 가지 정신이 내 안에 머무르겠지. 나는 그들이 주는 교훈을 소홀히 여기지 않을 거야.”⁹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곧 “간고”의 짐을 지고 또 “질고를 아는”¹⁰ 그분은 고통 받는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며 평안이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나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¹¹

참된 나눔

주님은 복음의 기쁜 소식과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시면서 전세계에서 봉사하는 수천 명의 선교사들을 통해 그분의 말씀을 보내 주십니다. “나는 어디에서 왔는가? 내가 이 곳에 있는 목적은 무엇인가? 나는 죽은 후에 어디로 갈 것인가?”와 같은 심오한 질문들에 대해 주님의 특별한 종들은 답을 알려 줍니다. 평강의 왕, 즉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부름 받은 사람들이 겸손한 태도로, 그러면서도 담담하게 진리를 가르칠 때, 좌절과 의심은 사라지며 불확실함도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주님의 은사는 개별적으로 주어집니다. “불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¹²

참된 나눔과 관련하여, 제가 보좌로서 봉사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며 최근 세 분의 대관장님들에게서 배웠던 몇 가지 예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님(1899~1994)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그 분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교회 대관장을 통해 받았던 임무에 대해 설명해 주셨습니다. 벤슨 대관장님은 아내와 가족을 떠나 독일과 다른 나라에 있던 피폐된 교회 회원들에게로 가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에 따른 복지 프로그램을 통해 그 분은 말 그대로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고, 애통해 하는 사람들을 위로하셨으며, 그가 만난 모든 사람들을 하늘에 보다 가깝게 들어올려 주셨습니다. 세월이 흐른 후 독일의

츠위크하우에서 열린 한 헌납식에서 어느 연로한 회원이 축축하게 젖은 눈으로 제게 말했습니다. “벤슨 대관장님께 우리가 그 분을 사랑한다고 부디 전해 주십시오. 그 분은 우리 생명을 구해 주셨습니다. 제 생명, 아내의 생명, 자녀들의 생명, 그리고 아주 많은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말입니다. 그 분은 말 그대로 미래에 대한 희망과 자신감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천사였습니다. 그 분에게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는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1907~1995)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한번은 헌터 대관장님께서 참으로 큰 비극과 힘든 상황을 다루셔야 했습니다. 우여 곡절 끝에 그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사람들을 낙담시키기보다는 그들에게 주님의 길을 보여 주어 그들이 그분을 따를 수 있도록 그들을 들어올리는 것을 좋아합니다.” 뒤이어 이 성자 같은 지도자는 좌절하고 있던 어떤 부부에게 용서의 선물, 동정의 선물, 격려의 선물을 값없이 주었습니다.

세 번째는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님에게서 배웠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많은 여행을 하신 예언자이며 대관장이십니다. 그 분은 그 분의 존재, 그 분의 모범, 그 분의 간증을 온 세계에 나누어 주셨습니다. 약 5년 전 그 분은 미국 남동 지역을 방문하여 수만 명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돌아오셨습니다. 집으로 온 다음날 아침, 힝클리 대관장님은 다소 피곤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숨을 한 번 크게 쉬시더니 이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옥, 농경지,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삼켜 버린 엄청난 홍수로 인해 중앙 아메리카 사람들이 겪은 크나큰 고통에 대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재해 지역을 방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엘 톰 페리 장로와 에이치 데이비드 버튼 감독을 대동하고 이틀 후에 그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는 대관장님과 함께 배급 장소로 이미 보낸 물자와 그 곳에 접수된 물자, 그리고 항공편 및 선박편으로 가고 있는 물자에 관한 자료를 검토했습니다.

힝클리 대관장님은 제 기능을 잘하고 있는 복지 프로그램에 대해 흐뭇해 하시며 3일간의 여정을 마치고 돌아오셨습니다. 그 분은 회원들을 만나셨습니다. 선교사들도 만나셨습니다. 그 분은 한때 집이 있었던 곳에서 남겨진 잔해들을 정리하던 사람들에게



에즈라 태프트 벤슨 대관장(왼쪽)은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아내와 가족을 떠나 독일과 다른 나라에 있던 피폐된 교회 회원들에게 갔을 때 참된 나눔의 모범을 보여 주었다.

**오른쪽: 약 5년 전 고든 비 힙클리
대관장님은 홍수로 큰 피해를 입은
중앙 아메리카를 방문하는 동안
사람들을 격려하고 원조를
약속했다.**

감사의 뜻을 전하셨습니다.

힙클리 대관장님은 그들에게 격려와
추가 원조의 약속을 전해 주셨으나,
그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에게 그 분 자신을
주셨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예언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힙클리 대관장님과의 평생에 걸친 친분을 통해 저는 그 분이
교회의 성스러운 기쁨에 대해 지혜롭고 신중한 청지기 직분을
다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분은 낭비와 사치를
싫어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힙클리 대관장님이 궁핍한 사람,
굶주린 사람, 억압 받는 사람, 또는 탄압 받는 사람으로부터
돌아서시는 것을 결코 본 적이 없습니다. 돕는 것은 우리가 지닌
성스러운 의무입니다. 음식, 거처, 지원은 값없이 주어지며, 이로
인해 고통이 줄어들고, 마음에 용기를 얻으며, 삶이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원리에 따르기 위해
우리 자신을 다시 헌납하는 데 있어 지금 이 성탄절기보다 더 좋은
때는 없습니다. 지금은 주 하나님을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이웃을 우리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시기입니다. 돈을
주는 사람은 많은 것을 주는 것이며, 시간을 주는 사람은 더 많은
것을 주는 것이고, 자신을 나누어 주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는
것이라는 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탄절
선물의 모습이 되도록 합시다. ■

주

1. 니파이삼서 1:13.
2. 마태복음 4:19.
3. 요한복음 1:43.
4. 마태복음 9:9.
5. 교리와 성약 64:34.
6. "Make the World Brighter",
Deseret Sunday School
Songs(1909), 197장.
7. Senate, Peter Marshall, 80th
Cong., 1st sess., Congressional

- Record(1947년 12월 19일), 93,
pt. 9:11673.
8. *A Christmas Carol in Works of
Charles Dickens, Complete and
Unabridged*(1982), 535쪽.
9. *Works of Charles Dickens*,
581쪽.
10. 이사야 53:3.
11. 요한복음 14:27.
12. 요한계시록 3:20.



**오른쪽: 하워드 더블류 헌터
대관장님은 참으로 큰 비극과 힘든
상황에서 좌절하고 있던 한 부부에게 용서의 선물, 동정의 선물을 값없이
주셨다.**

가정 복음 교사를 위한 제언

기도하는 마음으로 준비한 후에, 여러분이 가르치는 사람들의 참여를
격려하는 방식으로 이 메시지를 전한다. 다음은 몇 가지 예이다.

1. 가족들에게 성탄절기에 자신이 가진 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던
경험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을 부탁한다. 함께 "나를 따르라" 부분을
읽는다. 한해 동안 나누는 일에서 구세주의 모범을 따르도록 가족들을
격려한다.
2. 여러분이 가르치는 각 가족에게 여러분 자신을 선물로 준다. 그런
후 가족들에게 "참된 나눔" 부분에 있는 나눔의 예들을 읽도록 권유한다.
메시지의 마지막 단락을 소리 내어 읽고 구세주께서 여러분에게 그분
자신을 선물하신 것에 대해 간증한다.



가정에서 만드는 성탄절

진 알 쿡 장로

칠십인 정원회

우리의 성탄절 선물은 몇 가지 지침을 정함으로써 주고 받는 사람 모두에게 좀더 훌륭한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우 리 가족이 남미에 살았던 4년 반 동안, 우리는 미국에서 기념했던 어떤 성탄절과도 다른 성탄절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곳에서의 성탄절은 통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했던 것에 비해 단순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인 상황으로 인해 명절의 경기는 침체되어 있었습니다.

남미에서의 임무를 마치고 성탄절을 즈음하여 미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상점에서 판매 중인 수많은 물건들을 보았습니다. 각종 게임, 시계, 오디오, 텔레비전, 눈썰매, 말하는 인형, 모형 비행기, 비디오 재생기, 전자 오븐 등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바뀐 주변 상황에 적응하는 일이 힘들었습니다.

질문은 명백했습니다. “성탄절은 어떤 날인가?” 성탄절 즉 크리스마스라는 단어를 나누어 보면, 크라이스트(그리스도)와 마스입니다. 스페인어에서 마스(*mas*)라는 단어는 “더욱 많다”라는 의미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크리스마스가 *mas*

y mas y mas (“더욱더 많이, 더 많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작 이 단어 안의 크라이스트(그리스도) 부분과 나눔이라는 실제 선물은 잊혀진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참된 정신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여 나누고, 사랑하고, 서로를 보살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일들이 적어도 우리에게는 혼잡 속에 묻혀 떠나려간 듯이 보였습니다. 우리는 때로 나눔의 참된 정신에서라기보다는 의무감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 선물을 사야 한다는 큰 부담을 느꼈던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나눔에 대한 가족 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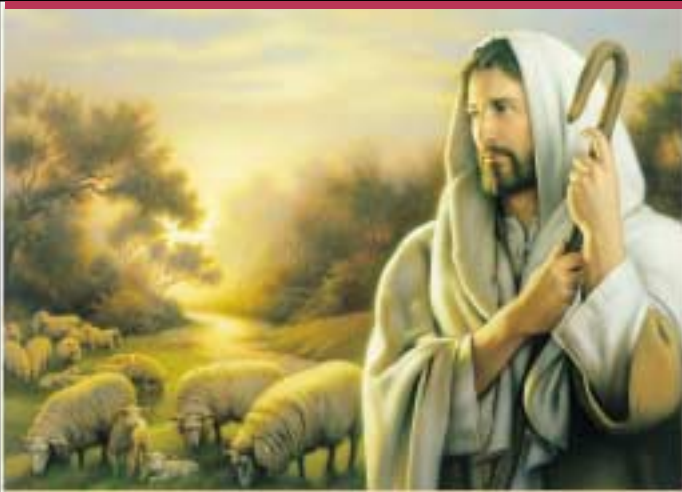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나눔의 참된 정신을 지니고 우리가 보통으로 해 왔던 것보다 훌륭하게 성탄절(이나 생일)을 보낼 수 있을까 자문해 보았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다음과 같은 지침을 활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1. 선물을 사야 한다면 조금만 산다.
2. 대부분의 선물은 우리가 직접 만들거나 자신의 시간을 내주어야 한다.
3. 선물의 재료를 사야 한다면 조금만 산다. 재료를 사는 대신 스스로 알아서 구해야 한다.
4. 우리는 받는 사람의 필요 사항을 깊이 생각하여 우리의 시간, 재능, 그리고 우리 자신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



나눔의 참된 정신을 어떻게

성탄절에 다시 되살릴 수 있는가? 그 대답을 찾는 일은 우리 가족에게 훌륭한 경험을 가져다주었다.



다음에 나오는 주님의 가르침은 나눔의 참된 정신이
실재하며, 또 가장 크고 가치 있는 선물은 시간과 소유물과
재능이 담긴 선물이라는 것을 말해 주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선물은 자신을 나누어 주는 것이다.

봉사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요한복음 10:11)

사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한복음
3:16)

의로운 선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마태복음
20:4)

나눔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마태복음 10:8)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사도행전 20:35)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누가복음 12:48)

억지로가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나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주께]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린도후서 9:7)
“헌물을 바칠 때 애석한 마음으로 행하면] ... 결국은 헌물을 바치지
아니한 것으로 헤아려져”(모로나이사서 7:8)

이러한 지침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경험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규칙에 따르면서 받는 사람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무엇이 부족한지를 알기 위해 그 사람에
관해 더욱 깊이 생각하고 또 나아가 기도하게 된다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생일이나 성탄절이 오기 여러 달 전에 의미 있는
선물을 준비하는 것은 나눔의 정신을 몸에 배게 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방법은 또한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자립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엄마를 위해 선물을 만들던 여덟 살 된 제 아들을 도와 주던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는 나무 조각을 이용하여 열쇠
고리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어떤 것도 사지 않는다는 지침에 따라
우리는 오래된 나무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다지
좋은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것을 사포질하는 데 보통
때보다도 세 배 정도의 시간이 더 들었습니다.

페인트 칠을 해야 할 때가 되었을 때 우리는 페인트 붓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래된 바구니에서
밀짚과 대나무 조각을 가져다가 손수 붓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으로 칠을 마쳤을 때 과연 멋있게 보일까 의심이 들었지만
놀랍게도 대나무와 밀짚은 제가 여지껏 사용했던 그 어떤 페인트
붓 못지않게 그 기능을 다했습니다.

저는 열쇠를 끼는 데 필요한 고리를 사고 싶었지만 제 아들은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우리는
머리 없는 못 몇 개를 활용하고 인내심을 발휘하여 큰 사랑과
헌신으로 모양을 다듬어 일을 끝냈습니다. 못은 우리가 상점에서
살 수 있는 어느 것처럼 아름답게 고리 모양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은 우리가 마음으로 전하는 진정한 선물이었습니다.

이웃에게 주는 선물 증서

우리가 이웃과 친구들에게 주는 다른 종류의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족 선물 증서라고 부릅니다. 종이 위에 우리는
사람의 성명을 적고 그에게 해 줄 봉사를 적어서 증서를 만듭니다.
증서 안에는 다음 같은 것들이 적혀 있습니다.

- 차고까지의 진입로 무상 눈 치우기 한 번
- 무상 잔디 깎기 한 번
- 무상 차고 청소 한 번
- 무상 세차 한 번
- 자녀 한 명의 무상 피아노 공연 한 번
- 무상 빵 두개(엄마가 아니라 자녀가 만든)

- 무상 아기 돌보기
 - 남편을 여윈 분을 위해 두 시간 유리창 수리
 - 복음을 가르치기 위한 무상 노변의 모임 한 번
-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종류의 선물들은 특별한 의미를 전해 줍니다.

가족들에게 주는 선물 증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다음 사항들을 포함하여 같은 종류의 선물 증서를 줍니다.

- 침대 정리 일곱 번(자녀들 사이에서 시행)
 - 증서를 제시하면 상대방이 원하는 시간에 설거지 세 번
 - 노래하는 아빠를 위해 피아노 반주 한 시간
 - 등산 한 번
 - 상대방을 위한 차고 청소
 - 아빠 또는 엄마와 한 시간 동안 함께 있기
- 여섯 번
- 평화와 조화의 한 시간 여섯 번(아빠와 엄마에게 드리는)
 - 일 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 열두 통의 편지(멀리 떨어져 있는 어머니에게 보내는)

여러분이 주님의 영광 경전(앞 쪽 왼편의 관련 성구 참조)의 말씀에 따라 주려고 노력한다면, 받는 사람에게 관해 더욱더 많이 생각하고, 영혼 속에서 나오는 사랑을 표현하며, 받아들일 만한 선물을 기 위해 주님께 도움을 간구하며, 성취감을 만끽하는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더욱더 나누어 주려는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나눔의 참된 정신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즉 나눔과 사랑의 참된 정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좀더 온전히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은 물건을 나누어 주는 일이 아니라 성탄절과 그리스도의 정신을 나누어 주는 일에 더욱더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

"A Christmas Made at Home", Ensign, 1984년 12월호, 56~59쪽에서 수정 인용.

나눔의 참된 정신을 실천할 때 우리는 주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도록 성장할 것입니다.





열 가지

너에 대해 사랑하는 것

로이즈 주를리겐 조르겐센

마 음에서
우려난
에릭의
성탄절 선물은 우리
가족에게 커다란 의미가
있었다.

큰 아들 에릭이 고등학교 3학년일 때, 그 아이는 가족에게 성탄절 선물을 주고 싶어했다. 에릭은 용돈이 거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마음의 선물을 주기로 결정했다.

에릭은 대학 시절과 선교 사업 동안에 자기가 각 개인에 대해 가장 그리워하게 될 열 가지 일들의 목록을 온 가족을 위해 만들었다. 그의 목록은 두루마리처럼 말려져서 각각 리본으로 묶여 있었다.

성탄절에 우리는 큰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선물을 열어 보았다. 내 목록에는 “엄마가 컴퓨터를 사용하려 애쓰는 모습 보기”와 “엄마의 포옹”이 포함되어 있었다. 우리 각 사람에 대해 열 가지를 생각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음이 틀림없었다. 나는 울었고, 다른 형제들은 웃었으며, 하나뿐인 여동생은 자기의 목록을 소중히 간직했다. 그 목록은 삼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딸아이의 방문에 걸려 있다.

에릭이 과테말라에서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지금, 우리는 그가 귀환하기 전에 맞는 마지막 성탄절을 위해 색다른 것을 보내고 싶었다. 우리

각자는 삼 년 전에 그 아이가 우리에게 준 선물을 우리 방식대로 적어 보았다. 우리는 거기에 “에릭이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 내가 에릭에 대해 가장 그리워하는 열 가지”라는 제목을 붙였다.

어떤 식구에게는 그 일이 쉬웠다. 에릭의 남동생들은 어려워 하기는 했지만 결국은 다 적었다. 그것은 훌륭한 가정의 밤 활동이었으며, 우리 모두는 그 열 가지를 생각하면서 웃고 울었다. 우리가 얼마나 훌륭한 가족 전통을 세우기 시작했는지 모른다. 다른 자녀들이 학업과 선교 사업을 위해 집을 떠날 때마다 계속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나는 뭔가 색다른 선물을 만들기로 생각했던 한 바쁜 아들이 준 이 선물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그 아이에게서 이런 선물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우리는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

로이즈 주를리겐 조르겐센은 오리건 메드퍼드 스테이크 애쉬랜드 제2와드의 회원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울슨 에프 휘트니는 1855년 7월 1일 유타 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태어났다. 그는 조셉 에프 스미스 대관장에 의해 1906년 4월 9일 십이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성임되었다. 휘트니 장로는 75세를 일기로 1931년 5월 16일 솔트레이크시티에서 사망했다. 이 글은 1925년 6월 7일에 열린 상호향상회 50주년 기념 대회의 일요일 저녁 모임에서 한 말씀에서 발췌한 것이다.

울슨 에프 휘트니 장로(1855~1931)

십이사도 정원회

그리스도교인이라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조차도 구속주의 성스러운 특성과 사명을 의심하고 있는 때에 아직도 “세상에서 믿음” [누가복음 18:8], 즉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신 인류의 구세주로, 그리고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요한복음 3:16)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예민된 사자로 믿는 신앙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은 축하하고 기뻐할 만한 이유가 됩니다.

이러한 확신을 굳게 갖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에는 말일성도들이 있습니다. ... 그리고 오늘 밤 우리는 시온의 청남 청년들의 표어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지킨다”라는 말이 새겨진 깃발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간증은 어떻게 오는가

그러한 간증은 오직 한 가지 방법, 즉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옵니다. 책이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학교도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어떤 인간적인 권세도 그것을 줄 수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온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사로서 높은 곳에서 오는 직접적이고도 즉각적인 계시에 의해 옵니다.

예수님은 그분의 수석 사도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라고 대답하자 예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마태복음 16:15~17)

그것이 베드로가 지닌 간증의 기초였으며, 그것은 비슷한 특성을 가진 모든 참된 간증의 기초입니다. 그것들 모두는 같은 토대 위에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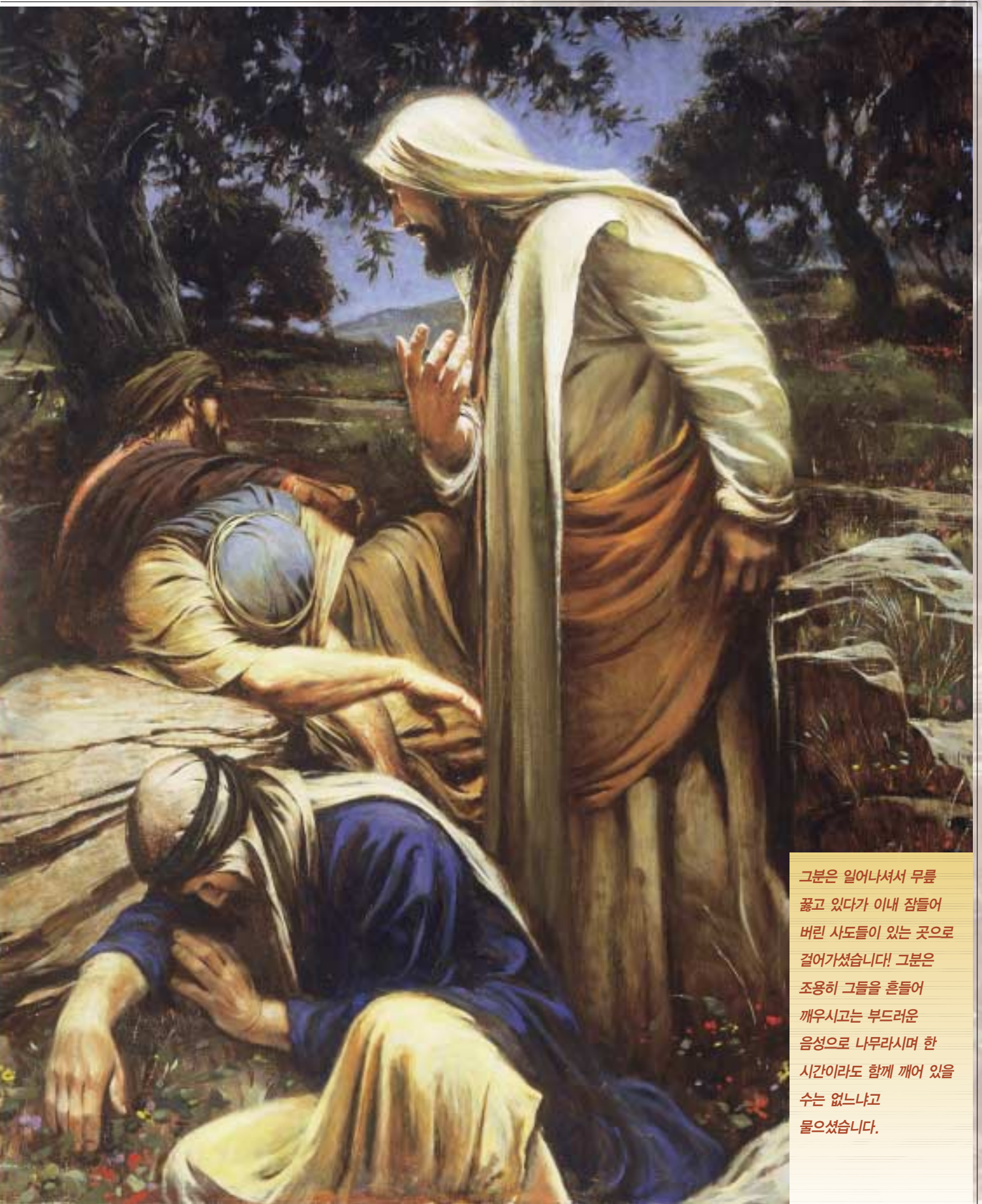
간증은 증거를 의미하며, 그것은 여러 가지 것들, 즉 복음의 다양한 은사라는 열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꿈, 시현, 예언, 방언과 그 해석, 병 고침, 그리고 성스러운 영의 나타남 등, 이 모든 것들이 그 범주 안에 포함됩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그러나 모든 간증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하게 확신을 주는 것은 구세주께서 떠나신 후에 그분이 그들과 함께 머무르게 하고, 과거의 일들을 기억나게 하며, 과거, 현재, 그리고 장래의 하나님의 일들을 나타내면서 다가올 일들을 그들에게 보여 주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즉 성신의 권세로 복음을 배우고 이해하는 영혼의 능력입니다.

가장 위대한 은사

그런 영에 의해, 오직 그에 의해서만 사람은 하나님, 그리고 그분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을] 알고 또 그 지식을



그분은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있다가 이내 잠들어 버린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들을 흔들어 깨우시고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무라시며 한 시간이라도 함께 깨어 있을 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가지고 일관되게 행동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오는 모든 은사를 가운데 가장 큰 그 은사를 얻는 방법을 아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일이 육신으로 있는 동안 사람에게 올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하고, 자신이 어디에서 왔는지, 왜 여기에 있는지, 여기로 보낸 분께서 자신에게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 필멸의 생을 마치면 어디로 가는지, 그리고 위대한 내세에서 무엇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지를 꼭 알아야 합니다. 성령은 이러한 지식, 곧 사람이 지닐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지식의 근원입니다. 그것으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가 과거에 신성하신 존재이셨듯 현재에도 신성하신 분이라는 간증이 옵니다. ...

시대를 이어온 간증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 계시니” [요기 19:25], 의로운 욥이 격심한 시련과 고난을 인내하며 영혼의 깊은 곳에서 분출했던 이런 당당한 외침은 10,000명 아니 10,000명의 10,000배 이상 되는 충실하고 의로운 사람들의 가슴에서 메아리치고 있으며, 그들의 영감 받은 간증은 아담의 시대부터 요셉 스미스의 시대까지 이어져 전해오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성스러운 경전은 수많은 기적과 이적에 의해 입증된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간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신의 친구들뿐 아니라 적들을 위해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분이 여기 있습니다. 어떤 필멸의 인간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성스러운 삶과 죽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기적도 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말해 물 위를 걸으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악마를 내쫓으시고, 눈먼 사람에게 시력을 주시고, 다리 저는 사람을 걷게 하시는 등의, 초자연적이라고 여기는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다고 하더라도, 그분의 신성에 대해 의심할 여지가 있는 행위나 처신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적을 용서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고,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시며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셨던” [사도행전 10:38] 그분의 생애보다 더욱 신성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죽음의 고통을 겪으시며 십자가 위에 달리시는 동안 자신을 죽이는 살인자들을 위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심으로써 하나님다운 크나큰 관대함의 모범을 보이지 않으셨습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누가복음 23:34]

무엇이 그보다 더 신성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외에 어느 누가 그러한 시간에 그같은 기도를 드릴 수 있었을까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습니까.” [요한복음 15:13] 그러나 자신의 친구들뿐 아니라 적들을 위해서도 자신의 목숨을 버릴 수 있었던 그분이 여기 계십니다. 어떤 필멸의 인간도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인간, 친구뿐 아니라 원수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돌아가셔야 했습니다. 그 행동 하나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명 위에 신성이라는 도장을 찍기에 충분합니다.

알고 있는 사람들

십이사도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위치만으로도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고 주장하셨는지를 의심의 여지없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그분의 부활을 증거해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무덤에서 나오시기까지는 이 지구에 부활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 [고린도전서 15:20]가 되셨습니다. 사도들은 단순히 믿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나가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는 예수께서 죽은 자로부터 살아나셨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저희의 견해이며 확신입니다.” 그러한 말이 죄로 완악해진 세대에게 어떤 감동을 주겠습니까? 그들의 경우 믿음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니다. 그들은 알아야 했고 또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에게서 들었으며,

심지어는 그분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그분을 만져 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사명에 따른 독특한 특성으로 인해 이러한 지식을 지니는 것은 그들의 권리였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분에 관해 증거하는 것을 믿도록 요구 받습니다. ...

믿음과 지식

표적을 구하는 것은 불순한 성향을 나타내는 가증한 일입니다. 사람이 지상에 존재하는 위대한 목적 가운데 하나인 영적인 발전은 신앙의 행사에 의해 오기 때문에 보지 않고 믿을 때 축복을 받습니다. 반면에 지식은 신앙을 삼김으로써 신앙의 행사를 방해하고 나아가 그러한 발전을 가로막습니다. 물론 “지식은

힘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적절한 때에 알려져야 합니다. 그러나 선부른 지식, 즉 그릇된 시각으로 아는 것은 발전과 행복에 치명적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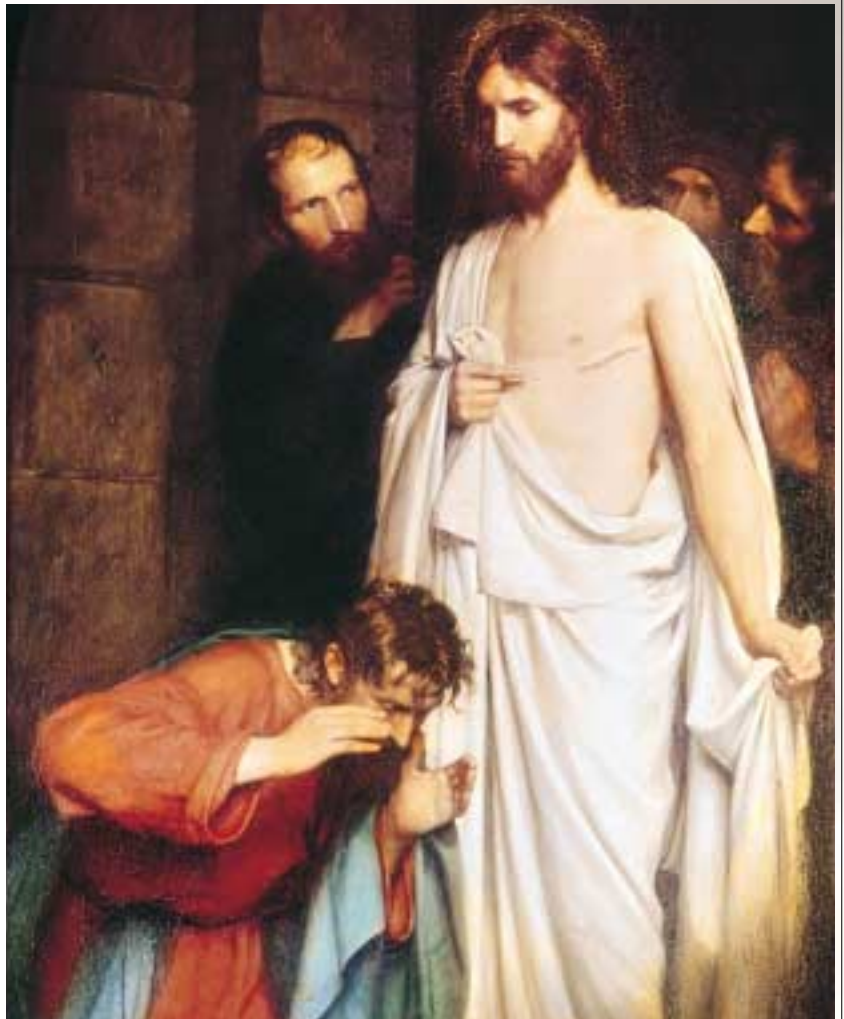
사도들의 경우는 예외였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그들의 그 강력한 간증에 필수적인 힘과 권세를 실어주기 위해서도 그런 지식은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오는 권세

그러나 그들의 경우에서조차 그리스도의 신성을 알고 그에 대해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귀로 듣는 것 이상의, 손으로 만지는 것 이상의 어떤 것이 필요했습니다. 부활 이전에도 베드로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며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있었는데, 그것은 성스러운 계시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십이사도들도 똑같은 방법에 의해 같은 지식을 받을 자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사명에 대한 자격을 갖추게 하기 위해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 이외에도 어떤 것이 필요했다는 사실은, 나타나심 이후에 그리고 주님께서 사도들에게 가서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마가복음 16:15]고 명령하신 이후에, 그들이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누가복음 24:49] 예루살렘에 머물라는 명을 그분에게서 받았다는 데 잘 나타나 있습니다. 그들은 순종했고, 그 능력은 그들에게 왔습니다.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으며] ...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였습니다.”(사도행전 2:2~4)

사도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을 갖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그런 의식을 집행하는 성스러운 권능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침례를 받아 깨끗하게 된 모든 사람들에게 그와 똑같은 능력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들도 성신을 받고 계속된 순종에 의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말일의 간증

고대에 있었던 일은 이 정도에서 끝내겠습니다. 이제 현대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19세기 초반에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의 아들께서 자신들을 나타내셨던 대상이었고, 또 영원한 복음을 고대의 모든 은사들과 축복들과 함께 가장 위대한 말일의 경륜의 시대의 초입에 회복시키는 도구였던 요셉 스미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들 시드니 리그돈과 함께 보고 영원한 세계의 영광을 바라보았던 요셉 스미스, 커틀랜드 성전에 있는 연단의 벽 위에서 서 계신 여호와, 즉 예수 그리스도를 올리버 카우드리와 함께 보았던 요셉 스미스, 이 사업의 기초를 놓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바쳤던 예언자 요셉 스미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해 강력한 간증 이상의 기록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충실한 성도들이 그런 간증으로 인해 기뻐했고 또 기뻐하고 있으며, 성신의 권세를 통해 모든 것이 그들에게

십이사도는 그분의 특별한 증인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위치만으로도 그들은 그분께서 자신이 어떠한 분이라고 주장하셨는지를 의심의 여지없이 알아야 했습니다. 그들은 알아야 했고 또 알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을 보았고 그분에게서 들었으며, 심지어는 그분이 참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확실히 알도록 그분을 먼저 보는 것이 허락되었습니다.

확인되었습니다.

선교 임지에서

참으로 중요한 이 주제의 수많은 증거들에 저의 작은 증거를 더해 드리고 싶습니다. 50여 년 전에 저는 젊은 선교사로 펜실베이니아 주에 있었습니다. 저는 진리에 대한 간증을 간구하고 있었으나, 막상 선교 사업에는 그다지 큰 열의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선교 사업에 경험이 많았던 제 동반자가 부지런히 지침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 저를 나무라며 말했습니다. “장로님은 교회 서적들을 공부해야만 합니다. 장로님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 것이지, 신문 기사를 쓰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런 말을 들은 것은 제가 당시에 그런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습니다만, 제가 글을 잘 쓸 수 있다는 점에 스스로 매혹되어 있었고 또 스물한 살의 청년으로서 선교 임지로 가라는 부름을 받아들이면서 포기했던 [연극]을 제외한 그 어떤 다른 직업보다도 글쓰기를 좋아했기에 여전히 그 일을 계속했습니다.

갯세마네에서

어느 날 밤 저는 꿈을 꾸었는데, 그것을 꿈이라고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지만, 아무튼 저는 구세주의 고통의 증인으로서 갯세마네 동산에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 계신 회중을 분명하게 보듯이 저는 그렇게 그분을 보았습니다. 저는 바로 앞에 있는 나무 뒤에 서서 저를 보이지 않고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함께 제 오른쪽에 있던 작은 쪽문으로 오셨습니다. 세 명의 사도들에게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 곳을 떠나 다른 편으로 건너가셔서 그분 또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기도와 똑같았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마태복음 26:36~44; 마가복음 14:32~41; 누가복음 22:42 [참조])

그분께서 기도하실 때 저를 향한 그분의 얼굴에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 광경에 너무나 감동된 나머지 저 또한 그분의 크나큰 슬픔에 동참하여 순수한 연민으로 울었습니다. 제 온 마음이 그분에게로 다가갔습니다. 저는 온 영혼을 다해 그분을 사랑했고 그분과 함께 있기를 갈망했기에 다른 어떤 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곧 그분은 일어나셔서 무릎 꿇고 있다가 이내 잠들어 버린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그들을 흔들며 깨우시고는 최소한의 분노나 꾸짖음도 없이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무라시며 한 시간이라도 함께 깨어 있을 수는 없느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곳에서 그분은 그분의 예민한 영혼을 괴롭히는 모든 남자, 여자, 어린이의 고통과 함께 세상의 죄의 짐을 자신의 어깨 위에 지셨습니다. 그들은 그 짧은 한 시간 동안도 그분과 함께 깨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시던 곳으로 돌아오셔서 그분은 다시 기도하셨으며 그리고 또다시 사도들이 있는 곳으로 가셔서 자고 있는 그들을 발견하셨습니다. 그분은 다시 그들을 깨워서 훈계하신 후 돌아오셔서 전과 같이 기도하셨습니다. 세 번이나 이런 일이 일어났으며, 저는 그분의 얼굴, 형태, 움직임 등 그분의 모습을 완전히 익히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기품 있는 풍채와 당당한 모습을 지니셨습니다. 몇몇 화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약하고 남자답지 못한 모습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계신 그분은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었지만, 어린아이처럼 온유하고 마음이 낮은 분이셨습니다.

잠시 후 모든 상황이 한꺼번에 변한 듯 했습니다. 하지만 남아 있는 광경은 똑같았습니다. 앞에서 있었던 상황과는 달리 십자가에 달리신 이후였으며, 그 세 사도들과 함께 구세주께서는 이제 제 왼편에 있던 한 무리 속에 계셨습니다. 그들은 지상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려고 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서 뛰쳐 나가 그분의 발 아래 엎드리고는 무릎 주위를 꼭 껴안고 저도 같이 데리고 가 달라고 간청했습니다.

저는 그분께서 몸을 굽혀 저를 일으켜 세워 주시고 껴안아 주시던 그 친절하고 부드러운 태도를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그것은 너무도 생생하고, 너무도 현실 같아서 저는 그분의 품안에서 정말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런 후 그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내 아들이야. 이들은 그들의 일을 끝냈으니 나와 함께 갈 수 있다만 너는 머물러 너의 일을 끝내야 하느니라.” 그래도 저는 여전히 그분께 매달려 있었습니다. 그분의 키가 저보다 크셨기 때문에 그분의 얼굴을 응시하며, 저는 정말 진지하게 그분께 간구했습니다. “그럼, 마지막 날에 주님께 나오게 될 것이라고 제게 약속해 주십시오.” 그분은 기분 좋게, 부드럽게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네 자신에게 달려 있느니라.” 저는 목메인 채 깨어났고 때는 아침이었습니다.

이야기의 교훈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제가 꿈 이야기를 동반자(에이 엠 머서 장로)에게 들려주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라고 제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분명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저는 제가 사도가 되거나 교회에서 그 어떤 다른 직분을 맡게 될 것이라고는 결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 일은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도 않았습니니다. 그러나 저는 잠을 자고 있던 사도들이 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어떤 한 가지 일을 하라는 성스러운 지명을 받았음에도 다른 일을 하는 어느 남자나 여자처럼 제 임무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영 대관장의 권고

그 시간 이후 모든 것이 변해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글 쓰는 일을 포기하지도 않았습니니다. 왜냐하면 고향 신문에 제가 기고했던 몇 편의 글을 보신 브리감 영 대관장님(1801~1877)께서 “글 쓰는 은사”가 저의 재능이라고 하시며 “지상에 진리와 의를 세우기 위해” 장래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을 계발하라고 충고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분이 제게 주신 마지막 권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분은 그 해에 돌아가셨는데, 저는 당시 오하이오 주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글쓰기를 계속했지만 그것은 교회와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소중히 생각했습니다. 그 밖의 모든

것은 부차적인 일이었습니다.

연사의 간증

그 후 성스러운 계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꿈이나 시현이나 여러 가지 것이 결합된 다른 나타냄보다 더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밝히신 촛불, 즉 성신의 은사에 의해 저는 그 당시까지 제가 결코 보지 못했던 것을 보았고, 결코 알지 못했던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전에는 결코 그만큼 사랑하지 못했을 정도로 주님을 사랑했습니다. 저의 영혼은 만족하게 되었고, 저의 기쁨은 충만했는데, 이는 제가 진리에 대한 간증을 얻었으며 또 오늘날까지 그것이 제게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의 구속주께서 살아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읍조차도 그것을 좀더 잘 알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의심할 수 없는 증거를 갖고 있으며, 이것이 제가 오늘 밤 우리가 수호하는 표어를 휘날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개인적인 간증을 지니고 또 전하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있는 이유입니다. ■

Improvement Era, 1926년 1월호, 219~227쪽

모든 간증 가운데서 가장 훌륭하고 가장 강하게 확신을 주는 것은 구세주께서 떠나신 후에 그분이 그들과 함께 머무르게 하겠다고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그 보혜사, 즉 성신의 권세로 복음을 배우고 이해하는 영혼의 능력입니다.

쌀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회원들이 십일조를 내면서 받은 통찰력과 축복을 함께 나누다.

매년 우리는 십일조 결산에 참여하여 감독이나 지부장과 함께 개인적으로 십일조 상태를 살펴보는 기회를 갖는다. 이 때 우리는 정직한 십일조를 내겠다는 결심을 새롭게 할 수 있다.

주님은 이렇게 명하셨다. “너희의 온전한 십일조를 창고에 들어 ...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말라기 3:10)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 활짝 열린 하늘 문을 통해 어떤 영적 및 세상적인 축복이 우리 삶에 부어지는가? 전세계에 있는 교회 회원들이 자신들의 간증과 경험을 적어 보냈다.

돌아오게 하는 안내자 역할

약 4년 전에 저는 20년 동안 충실한 교회 회원이셨던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저는 전혀 교회에 참석하지 않고 있었으며 복음에 관해서도 거의 아는 것이 없었습니다.

처음 저는 교회에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스테이크 대회에 참석한 저는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이신 아델스 데 파울라 파레라 장로님이 십일조에 대해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비록 이 율법에 관해 많은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파레라 장로는 확신과 신앙과 영을 가지고 말씀하셨고, 저는 그 날 이후로 십일조를 내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십일조와 헌금을 내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영이 제 가슴을 채우기 시작했고, 마치 탕자와 같이 저는 참된 복음의 길로 돌아오도록 인도 받았습니다. 주님은 저를 크게 축복하셔서 저는 브라질 포르탈레자 선교부에서 선교사로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십일조와 관대한 금식 헌금을 충실하게 낼 때 주님은 세상적으로나 영적으로 우리를 축복하신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라파엘 바르셀로스 마차도, 브라질 산타마리아 스테이크 파르케 핀에이로 와드

주님을 믿음

침례 받고 두 달이 지날 때까지 저는 아직 십일조를 낸 적이

주님은 우리가 십일조를 낼 때, “하늘 문을 열고 축복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없었다고 자매 선교사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직장이 없었고 그 달의 생활비도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자매 선교사들은 하늘 문을 열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읽어 주었으며, 저는 성신이 “주님을 믿으라”라고 제게 증거하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음날 제가 가진 적은 돈에서 십일조를 낼 때 무척이나 행복했습니다. 그 다음주에 저는 직장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 수많은 기적을 행하실 것임을 알고 있어서 저는 너무 행복합니다.

이반카 아바노바, 불가리아 소피아 지방부 소피아 쉐트랄렌 지부

넘치는 축복

가족 내에서 유일한 교회 회원인 저는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기 위해 많은 장애를 극복해야 했습니다. 이런 장애들 가운데 하나는 재정적인 것이었습니다. 저는 선교 사업을 위해 충분한 돈을 벌 수 있는 일자리를 찾느라 수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결국 저는 어떤 사람의 가사를 돌보는 일을 찾게 되었습니다. 비록 적은 돈을 벌기는 했지만 저는 십일조를 낼 수 있었습니다. 그 후 저는 세 어린이에게 영어를 가르치는 일을 찾았습니다. 그 수입은 월급의 두 배 이상이 되었으며, 두 가지 일을 계속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계속 십일조를 내며 여러 달을 일한 후에 저는 캄보디아 프놈펜 선교부에서 봉사하라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때때로 저는 주님께서는 주인이시고 제 자신은 그분의 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일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자고, 먹고, 놀기만 한다면, 그분께서 저에게 보상하실 수 있을까요? 제가 부지런히 수고하는데도, 주님께서 그분의 축복을 우리에게서 거두어 가실까요?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이상으로 보상하실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십일조의 법에 순종한다면, 그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은 얼마나 관대하겠습니까? 그분은 축복을 쌓을 곳이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말라기 3:10; 니파이삼서 24:10 참조) 이것이 십일조를 내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약속입니다.

영 분 후오크, 캄보디아 프놈펜 남지방부 타크마우 지부

신앙을 시험함

청소년이었던 제가 대만에서 교회에 들어왔을 때, 저는 수입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십일조를 내는 것이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졸업을 하고 일을 시작한 후에 그것은 조금 더 어려워졌습니다. 항상 사야 할 것은 많았고 지불할 돈은 너무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십일조 결산을 할 때마다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척이나
걱정되었고 또한
병원비를 어떻게 낼
것인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저는 그 달의
십일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완전한 십일조를 냈다고 지부장님에게
정직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해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입원하시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머니가 무척이나
걱정되었고 또한 병원비를 어떻게 낼 것인가도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일요일에 저는 그 달의
십일조를 내지 않았다는 것이 기억났습니다.
병원비를 내기 위해서는 수중의 돈이 다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한 저는 다음주까지 십일조 내는
것을 미루기로 작정했습니다. 일요일이 다가오자,
한 작은 음성이 우리가 십일조를 바치면 주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겠다는 약속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내
신앙을 시험할 때야.”

저는 은행에서 얼마간의 돈을 인출하여 십일조
봉투에 넣었습니다. 약간의 망설임이 있었으나
용기를 내어 그 봉투를 지부장님에게 드렸습니다.
봉투를 내면서도 주저하는 느낌이 조금 들긴
했지만,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기로

결심했습니다.

꼭 일주일 후에 저는 보험 회사로부터 곧 수표를
보내 주겠다는 전화 연락을 받았습니다.
“얼마지요?”라고 저는 물었습니다. 그 액수는 제가
낸 십일조의 몇 배나 되는 금액이었습니다. 우리가
충실할 때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시지 않을
것임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루 치아, 브리감 영 대학교 제6스레이크 BYU 중국인 워드

평안의 축복

2001년에 침례 받은 저는 매달 십일조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8개월 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저는 어린 두 자녀와 선교 사업 중인
한 아들을 거느린 미망인이 된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재정적인 문제가 심각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십일조를 결코 거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축복을 받아 더욱더 많은 일을 하게 되었으며, 그
일들은 제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제가 십일조를 냈기
때문에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평안을 느낀다는
점입니다.

요즘 저는 우리의 작은 집이 크고 안락한
집이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어린 두 자녀와 함께
평온함을 느낍니다. 주님은 신체적 그리고 영적
건강 뿐 아니라 지혜와 평안으로 저를 축복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에, 저는 결코 십일조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후세파 마르가리타 도스 산토스 폰테스, 브라질 리베이라오 페레스
스레이크 리오그란데 다 세라 워드

우리는 낼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아내 진과 저는 1957년 10월 27일에 침례를
받은 후 당연히 바쳐야 했던 십일조를 즉시 내지
못했습니다. 저는 우리에게 부채가 너무 많고 돈은
별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십일조를 꼭 내야
한다는 것을 진작 알아야 했습니다.

일 년이 지나 셋째 아이가 태어날

예정이었습니다. 우리는 얼마 전에 새 집을 샀고 또 여러 가지 많은 부채가 있었습니다. 그 즈음 제 아내를 “우리는 십일조를 내야 해요.”라고 말했습니다. 지출 후에 남는 돈이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몰랐지만 저는 “그렇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십일조를 냈습니다.

우리는 이미 새 집으로 이사를 했으나 거리와 진입로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출 수속이 아직까지 종료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곧 비가 내리기 시작하더니 계속해서 비가 더 많이 내렸습니다. 결국 거리 및 진입로 공사는 지연되었습니다. 대출 수속이 종료되지 않아서 저희에게는 여전히 대출금 상환 고지서가 오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공사가 다 끝났을 때쯤, 이번에는 주택 담보 대출 회사에서 대출 서류들을 분실했고 서둘러 그 서류를 찾는 것 같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상환금을 한 번도 내지 않은 채 육 칠 개월을 그 집에서 산 다음에야 그들은 서류를 찾았습니다. 우리는 이 기간 동안에 얼마간의 다른 빚을 먼저 갚을 수가 있었습니다.

재정적인 일들이 항상 쉽지는 않았지만, 십일조를 내지 않은 적은 결코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 경험을 하늘에서 온 축복이라고 부릅니다.

헨리 하드록, 텍사스 오테사 스테이크 미드랜드 제2와드

행복과 복지

스무 살 때 러시아 올란우데에서 교회에 대해 알아보고 있을 때, 오빠와 저는 음악 경연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저는 우리의 음악이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노래하는 동안 두 명의 심사위원이 감동하여 울었습니다. 우리는 2등을 하여 상금을 받았고, 저는 감격했습니다.

오빠와 제가 상금을 나눈 후에, 저는 제 뒤편에서

10퍼센트를 떼어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배운 것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은 제가 하나님께 10퍼센트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부의 회원들 가운데 한 분이 돈을 십일조 봉투에 넣는 방법을 알려 주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 가족이 음식을 살 돈이 부족해서 죽게 하지는 않으실 것이라 믿으며 처음 내는 십일조를 지부장님에게 드렸는데, 무척 행복했습니다.

그 날 저녁, 어머니의 친구 한 분이 저희 집에 오셔서 우리를 돕고 싶다는 제가 냈던 돈보다도 더 많은 돈을 우리에게

오빠와 제가 상금을 나눈 후에, 저는 제 뒤편에서 10퍼센트를 떼어 십일조를 내야 한다고 배운 것이 기억났습니다. 우리 가족은 재정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제가 하나님께 10퍼센트를 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저에게
사과가 든

봉지를 준 뒤에 이웃집의
어린 아들이 물었습니다.

“하나만 줄래요?”

주님께서 제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을까요?

주었습니다. 그 경험은 제게 너무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저는 6주 후에 침례를 받았으며 지금은 전임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복과 복지는 우리가 십일조를 내는 일에서 얼마나 정직한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가족도 이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마리타 아바노바 자매 선교사, 러시아 사마라 선교부

축복을 나눔

한번은 우리 애들이 어렸을 때, 음식을 살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지도 몰랐지만 저는 십일조를 내서 주님의 약속을 시험해 봐야겠다고 마음 먹었습니다. 저는 어느 누구에게도 우리의 어려운 처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놀랍게도 제 부모님께서 곧 우리가 아주 오랫동안 먹을 수 있는 충분한 양의 고기와 감자와 빵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큰딸은 학교에서 돈을 받고 어떤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애가 일하는 곳은 샌드위치 가게였으며, 주말에는 온 가족을 위해 샌드위치를 가져가도 좋다는 허락도 받았었습니다!

“이제 부족한 것은 과일뿐이야.”라고 저는 혼자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날 오후 자전거를 타다가 돌아오는 길에 저는 사과를 봉지에 넣고 있는 한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이것들을 가질래요?”라고 그녀는 물었습니다. 저는 놀라면서 정말로 그것들을 갖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 때 이웃집의 어린 아들이 옆으로 지나가면서 맛있는 사과를 보자 이렇게 물었습니다. “하나만 줄래요?” 저는 그 봉지를 그 아이에게 내밀었고 그는 하나를 꺼냈습니다. 제게 감사하며 행복에 찬 눈빛을 보내면서 그 아이는 서둘러 갔습니다.

주님께서 틀림없이 저를 시험하셨었다는 생각이 나중에 들었습니다. 그분께서 제게 너무도 많은 것들을 주셨을 때, 저 또한 다른 사람들과 나누었을까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저는 그렇게 노력해 왔습니다.

자이트 크리스티안센, 덴마크 아르투스 스테이크 프레페리시아 워드

먼저 십일조를 냄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 저는 대학교에서 비서로 일하는 좋은 일자리를 잡았으며, 아버지께서 가족을 부양하시는 것을 도와 드릴 수 있었습니다. 가족 중에는 아버지만 일을 하셨는데, 그분 혼자서 학교에 다니는 네 아이를 부양하신다는 것은 힘겨운 일이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생필품도 없었습니다.

그 후 제가 열여덟 살 때 아버지께서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는 편찮으셨기 때문에 일을



하실 수가 없어서 제일 나이가 많은 제가 가족을 부양해야만 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우리 생활에 필요한 돈을 충분히 벌지 못해 기분이 상해 있을 때, 말라기에 있는 약속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제가 온전한 십일조를, 그것도 음식을 살 돈이 부족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날 늦게 감독님이 음식과 도움이 되는 몇 가지 것들을 가지고 방문하셨습니다. 제가 가족을 부양하는 동안 주님은 결코 저를 저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남동생이 성장하여 선교사로 봉사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는 고향에 머물며 가족을 돕기 위해 일하고 싶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선교 사업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직장을 그만두고 선교 사업을 하기 위해 떠났습니다. 그 다음달에 저의 월급이 인상되었습니다. 동생이 선교 사업을 하는 동안 내내 우리 가족은 그 어떤 것도 부족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는 장학금을 받았으며 설계 기사가 되기 위해 공부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신발은 더 오래갔고, 우리의 옷은 과거만큼 빨리 해지지 않았으며 아프지도 않았습니다.

육 년 동안 가족을 부양한 후에 저는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에서 훌륭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십일조를 내는 것이었으며 우리는 항상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는 매달 수입에서 맨 먼저 십일조를 떼어 놓았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이 년 후, 남편이 교통 사고로 죽었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저는 제 가족을 부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게는 좋은 직업이 있고, 또 제가 계속해서 십일조의 법에 따라 생활한다면, 어린 아들과 제가 필요로 하는 것들을 갖게 될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결코 저를 저버리시지 않을 것이며, 또 그분은 계속해서 제게 세상적인 것뿐 아니라 영적인 축복도 부어 주실 것임을 저는 온 마음을 다해 알고 있습니다. ■
카리나 바네가스 바르시아, 에콰도르 쿠엔카 스테이크 몬나이 지부

육 년 동안 가족을 부양한 후에

저는 에콰도르 과야킬 성전에서 훌륭한 사람과 결혼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항상 십일조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어려움도 겪지 않았습니다.

견줄 곳이 없는 성스러운 집



엠마 워더즈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도 성전의
평화와 기쁨에
비교될 수 없다.

최 근에 우리
가족은
남아프리카의

우리 집 북쪽에 위치한
야생 공원에서 가족 휴가를
즐기다가 요하네스버그에서
며칠 밤을 보내며 성전을 방문하자는
결정을 내렸다.

요하네스버그에 있는 호텔은 너무나 멋있었다.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그런 호텔이었다. 침실은
우리 집 거실과 주방을 합한 것보다도 더 컸고,
욕실의 바닥도 난방이 되었으며, 텔레비전은
버튼을 누르면 상자 속에서 나왔고, 호텔 직원들은
모든 것을 잘 보살펴 주었다.

나는 감동을 받았다. 이런 것, 즉 편하게
즐기고, 왕족처럼 행동하는 것이 내 인생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다. 사실 나는
호텔의 호화로움에 심취되어 우리가 그 곳에 와
있는 목적마저 잊어버리고 있었다.

형제, 자매와 함께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기 위해 성전에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토요일 오전이었다. 그러나 나는 성전에 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그저 토요일에
늦잠을 자고, 이 아름다운
호텔에서 낮시간을
보내고, 그런 다음에
집으로 떠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만
하고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성전에 가기로
결정했다. 성전 문을

걸어 들어갈 때, 그 곳의
거룩함과 아름다움을 보고

느끼면서, 내 생각은 바뀌었으며
나는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를 깨닫게 되었다.
호텔이 아름다울 수는 있겠지만 성전에 비교될
수는 없었다. 죽은 자를 위한 침례를 행하면서
내가 가졌던 느낌은 그 어떤 세상적인
즐거움보다도 더욱 커다란 화평과 기쁨을 내게
가져다주었다.

나는 이 교훈에 커다란 감사를 드린다.
세상적인 것들에 사로잡히기는 쉽다. 이러한
것들은 매력적이지만 그것이 가져다주는 즐거움은
오래가지 않는다. 참된 기쁨과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계명에 순종하고 그것을 존중함으로써
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나는 좀더 명확히
이해하고 있다. ■

엠마 워더즈는 매사추세츠 캠브리지 스테이크 캠브리지
유니버시티 제2와드의 회원이다.

성 전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침례를
행하면서 가졌던
느낌은 그 어떤 희생이라도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다.

검소하게 생활하고 십일조와 헌금을 냄으로써 준비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방문하는 자매들의 필요 사항에 맞는 성구와 가르침을 이 메시지에서 선택하여 읽는다. 여러분의 경험과 간증을 나눈다. 여러분이 가르치는 자매들에게도 그렇게 하도록 권유한다.

어떤 것이 검소한 생활이며, 또 그것은 어떻게 우리의 삶에 축복을 가져다줄 수 있는가?

스펜서 더블류 킴블 대관장 (1895~1985): “검약하는 생활 [에는] ... 우리가 갖고 있는 자원을 절약하는 것, 재정 문제를 현명하게 계획하는 일, 개인의 건강에 대한 예방, 교육과 사회 진출을 위한 적절한 준비, 가정 생산 및 비축에 대한 적절한 관심, 그리고 정서면에서의 향상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그러한 원리는 옳은 것이고, 우리에게 만족을 가져다주며, 또한 주님께서 권고하시는 것이므로, 우리는 이러한 일에 순종해야 합니다. ... 언젠가 어려운 시기가 닥치리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 예언하셨기 때문입니다. ... 그러나 만일 우리가 현명하고 검소하게 생활한다면 우리는 안전할 것입니다.” (“복지 사업: 실천의 복음”, 성도의 빛, 1978년 2월호, 117, 120쪽)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 “우리는 자립에 관해서, 부채에 관해서, 검소에 관해서 거듭, 거듭 권고를 받았습니다. ...

“궁핍한 시기에 대비하여 건디어 낼 수 있는 약간의 식량을 비축하도록 합시다. 허둥대거나 극단으로 흐르지 않도록 합시다. 매사에 현명하게 행동합시다. ... 무엇보다도, 살아 계신 하나님과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믿는 신앙을 갖고 전진해 갑시다.” (“우리가 사는 시대”, 리아호나, 2002년 1월호, 85쪽)

보니 디 파킨 자매, 본부 상호부조회 회장: “광고 산업은 우리들의 욕구를 필요로 바꾸는 일에 매우 능숙합니다. 그로 인해 지불할 수 있는 것 이상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유혹을 감당하기 어려울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십일조를 정규적으로 내는 것은 현명한 재정 관리를 배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십일조를 낸다고 해서 우리가 수입의 범위 안에서 생활해야 할 필요성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가족의 행복은 물질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일하고, 대화하고, 문제를 풀어 나가는 남편과 아내로부터 옵니다.” (여성 대회, 헤리만, 유타 주, 2003년 2월 8일)

십일조와 헌금을 내는 것이 영적 및 물질적으로 준비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가?

말라기 3:10: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엔 엘돈 테너 부대관장(1898~1982), 대관장단 제1보좌: “십일조를 바치는 것은 하나의 계명, 그것도 약속이 수반된 계명입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지키면, 땅에서 번성 할 것이라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번성한다는 의미는 물질적인 부 이상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육신의 건강과 활기 있는 마음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가족의 단합과 영적인 성장도 포함됩니다.” (“변화 속의 불변성”, 성도의 빛, 1980년 3월호, 122쪽)

조셉 비 워스린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후한 금식 헌금을 내는 자는 많은 축복을 받게 되며 주님 및 감독과 동역자가 되어 고통 받는 자의 어려움을 덜어 주고 자립심을 심어 주게 됩니다. ... 우리는 자신이 내는 헌금에 대해 평가해 보고 주께서 우리에게 후하시듯 과연 우리도 그분께 후한지를 확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감에 찬 교회 복지”, 리아호나, 1999년 7월호, 92쪽) ■



질 의 응 답

성탄절에 가족에게 줄 만한 선물로서 가게에서 사는 물건보다 더 의미 있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음 대답은 견해를 밝히고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지 교회의 교리를 밝히는 것은 아닙니다.

리아호나의 대답

이런 상상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방금 선물을 받았습시다. 그것은 크고, 멋지고, 비싼 것입니다. 선물에는 다음과 같이 적힌 카드가 있습니다. “즐거운 성탄절을 보내십시오. 저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이 선물을 샀습시다. 이것을 사기 위해 노력을 들인 것도 아닙니다. 그저 돈이 있어서 산 것이니 큰 희생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좋은 선물이 되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런 카드를 받게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와 비슷한 선물, 즉 뭔가 인상적이기는 하지만 참된 의미가 담겨지지 않은 선물을 받을 수는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이 주는 선물이 그것을 받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어떤 선물이든 의미 있는 것이 되게 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얼마나 많이 생각하고, 여러분 자신의 의미를 새기거나 또는 어떤 희생을 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 날 동안 고심해서 지은 심금을 울리는 시나, 부모님이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은사, 즉 속죄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와 그분의 은사에 대해 간증하는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처럼 여러분 자신을 준다 것은 여러분의 시간, 재능,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입니다.

비싼 선물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것이 선물을 주고자 하는 사람에게 의미 있는 것이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선물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오. 선물을 받을 사람은 진정으로 무엇을 좋아하고, 필요로 하고 원할까요?

봉사는 의미 있는 선물입니다. 집안일이나 다른 일을 돕겠다고 하십시오.

하루 저녁 아기를 돌보아 주는 일 등은 아무리 비싼 것이라도 가게에서 5분이면 살 수 있는 선물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미국의 작가이자 철학자인 랄프 왈도 에머슨은 이렇게 썼습시다. “반지와 보석은 선물이 아니라 선물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변명일 뿐이다. 참된 선물은 그대 자신의 일부이다.”(*The Complete Writings of Ralph Waldo Emerson* [1929], 286쪽)

그리스도께서는 선물을 주는 방법을 가르치셨습니다. 경전을 펼칠 때마다 거기에는 구세주께서 다른 사람을 위해 무엇인가 해 주시거나 자신을 주시는 것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분은 질문에 대답해 주심으로써 시간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병자를 축복하시면서 그분의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분은 자신을 돌보지 않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심으로써 사랑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시간과 재능, 봉사 그리고 사랑을 나누어 줌으로써 자신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또한 모든 은사(선물) 가운데 가장 큰 은사, 즉 그분의 속죄를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하는 은사를 주셨습니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 속죄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주는 선물을 통해 그리스도의 은사에 관한 것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또한, 본 리아호나 6쪽에 있는 “가정에서 만드는 성탄절”을 참조하십시오.)

- ★ 성구와 구세주에 대한 여러분의 느낌과 함께 예수님의 그림을 주십시오.
- ★ 집안일이나 다른 일을 도와 주겠다는 “서비스 쿠폰”을 주십시오.
- ★ 여러분이 가족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릴 수 있는 어떤 일을 하십시오.

- ★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십시오.
- ★ 격려의 편지를 쓰십시오.
- ★ 누구에게든 물몬경을 주십시오.
- ★ 시간을 내어 다른 사람이 좋아하는 일을 함께 하십시오.
- ★ 그림을 그리거나 시를 쓰거나 노래를 작곡하십시오.
- 무엇을 줄 것인지를 생각하고 자신을 주는 문제를 생각하는 일은 그냥 가게로

뛰어가서 선물을 구입하는 것보다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미리 계획하십시오. 그 계획에는 추가로 노력이 따르겠지만 행복한 마음과 영의 따뜻함을 보상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데이비드 오 맥케이(1873~1970) 대관장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성탄절의 영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것은 형제간의 사랑과 우정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타오르게 하고 친절한 봉사의 행동을 하게 합니다.” (Gospel Ideals [1953], 551쪽)

독자들의 대답



가장 중요한 선물 중의 어떤 것은 가게에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게에서 사는 물건들이 갖고 있는 것 이상의 놀라운 힘을 갖고 있는 것으로 여러분이 줄 수 있는

선물은 친절, 사랑, 그리고 자비입니다. 우리는 가족 가운데 한 명의 이름이 적힌 작은 봉투에 격려의 편지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봉사 혹은 사랑을 하나 넣을 수도 있습니다.

브리애나 디버, 14세, 캘리포니아 로클린 스테이크 로클린 제4와드

우리는 가치 있는 많은 선물들을 갖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선물은 물론경과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참된 간증입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과 진지한 영으로 서로를 대할 때, 그것은 마치 사랑이 넘치는 구세주의 얼굴을 보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필리세나 파마오에 사벨리오, 19세, 사모아 우플루 웨스트 스테이크 라로비 와드



저는 이번 성탄절에 동생에게 무언가 의미 있는 것을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 답은 교회 잡지를 통해 주어졌습니다. 거의 모든 기사에는 인용과 그림이 첨부된 추가 설명이 있습니다. 두꺼운 종이의 한쪽에는 그것을 붙이고 다른 쪽에는 포장지를 붙여 훌륭한 서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저는 또한 서표를 넣은 상자에 인용문들도 썼습니다.

제니 메인스, 16세, 일리노이 네이퍼빌 스테이크 제네바 와드

제가 주려고 하는 선물들은 제가 직접 만든 것입니다. 시나 직접 만든 카드에 그들을 사랑한다는 말도 적어 보낼 것입니다. 제 경우에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바로 생각입니다.

캐롤 티 발로, 21세, 필리핀 칼라시아오 지방부 칼라시아오 제2지부



독 특한 문구로 장식된

성탄절 상품 카탈로그를 잠시 옆으로 제쳐 놓읍시다. 어머니께 드릴 꽃도, 아버지께 드릴 좋은 넥타이도, 그리고 귀여운 인형도, 기적 소리를 내는 장난감 기차도, 오랫동안 갖고 싶어하던 자전거도, 심지어는 과학 전집과 비디오 테이프도 제쳐놓고, 우리의 생각을 오래 지속되는 사랑의 은사를 비롯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로 돌려 봅시다.”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1보좌, "선물", 성도의 벗, 1995년 7월호, 60쪽.



구세주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에게 값진 선물, 즉 우리의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은 시간이 가면 가치가 없어지지만 누군가 여러분을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아는 일에 대한 기쁨의 가치는 말할 수 없을 뿐더러 끝도 없습니다.

루이즈 엔리케 켄 키에로스 이세, 17세, 브라질 비토리아 스테이크 카리아시카 와드



저는 지난 성탄절에 친구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는 구세주에 대한 간증을 전했습니다. 저는 크게 감동을 받았으며 아직도 그 간증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보석, 옷, 혹은 장난감 등이 가장 훌륭한 선물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태어나셨으며 죽음의 사슬을 극복하시고 오늘날 살아 계시다는 간증을 전하는 것이 가장 훌륭한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프시 로레나 티 카르데나스, 23세, 브라질 상파울루 파르케 핀에이로스 스테이크 하르딤 로베르토 와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청소년 독자들: 다음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을 성명, 나이, 주소, 와드 및 스테이크(혹은 지부와 지방부) 등과 함께 아래 주소로 보내 주십시오. 4x5 센티미터 이상되는 크기의 사진을 함께 보내 주십시오.

Questions and Answers 1/04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cur-liahona-imag@ldschurch.org

2004년 1월 15일까지 보내 주십시오.

질문

저는 매력이 없습니다. 제가 매력이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 아버지는 제게 이런 얼굴과 몸을 주셨을까요? 그분은 그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우리라는 것을 모르셨을까요? ■

“나는 참포도나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한복음 15:5)

안토니 알 템플 장로

칠십인 지역 관리 역원
북미 북동부 지역

결 혼 초기에 아내와 저는 정원에서 야채를 재배했습니다. 원예에 대해 아는 바가 거의 없었지만 우리는 정원 한구석이 비옥해 보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 곳은 정말 그랬습니다. 한쪽 구석에 우리는 호박을 심었습니다. 호박 넝쿨은 가만 두어도 저절로 울타리 꼭대기를 따라 10에서 15미터 가량이나 자랐습니다. 호박은 엄청나게 컸습니다. 그것은 초보자에게는 놀라운 수확이었습니다.

경전에서 우리는 종종 포도원과 포도나무에 관해 읽습니다. 그러나 포도를 키우는 일은 호박을 키우는 것처럼 쉽지 않습니다. 포도 농사를 잘 지으려면 적절한 기후와 숙련된 재배 기술이 있어야 합니다.

고대 히브리 문화에서 포도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으며 성지에 있는 평지와 언덕은 포도나무를 재배하기에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땅을 손질하고

언덕을 따라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원에는 주의 깊게 울타리를 둘러 원하지 않는 동물이나 사람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능한 한 많은 수확을 거두기 위해 공을 들여 포도나무를 가꾸고 손질했습니다.

포도 농사에서 가지치기는 아마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입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라 냅니다. 나무의 본 가지가 어느 정도 자라면 가지 끝을 잘라 내어 옆으로 순이 뻗어나가게 합니다. 그러한 가지치기는 가지가 위로 뻗는 것을 막고 새로운 가지에 양분이 가게 합니다. 그 후 이 결가지들이 자라나면서 각 가지마다 줄기가 생산할 수 있는 만큼의 많은 수확을 올리게 됩니다. 나무의 튼튼한 중앙 줄기는 땅 속 깊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 이 가지에 오랫동안 양분을 공급합니다.

포도원과 포도나무의 상징

포도원은 경전에서 종종 상징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구세주께서는 요한복음에서 그분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정확: 제리 헨디, 그림: 칼 웨인리히 블로흐, 최후의 만찬: 중 일부, 덴마크: 할러랜드 쇼저 프래드릭스보르그 국립 역사 박물관 제공

그분의 제자가 될 사람들의 본질적인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포도나무의 비유를 사용하셨습니다.

구세주께서는 깃세마네로 가시기 전에 사도들에게 계속해서 그분의 제자로 남아 있고자 한다면, 그들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 성스러운 시간에 가르치신 것들 가운데에는 그들이 그분과 그분의 가르침에 전적으로 의지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참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요한복음 15:1~2, 4~8)

이 비유에는 두 가지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첫째, 우리는 그리스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우리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4절 참조) 우리의 삶이 구세주의 가르침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열매를 맺지 않아 잘리는 가지와 다를 바 없이 될 것입니다. 둘째, 우리에게는 비록 우리가 의롭게

우리의 가치치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병을 앓거나 신체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슬픔을 겪거나 개인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슬픈 사건처럼 보이던 일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할 경우 우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생활하고 있을 때라 할지라도 우리를 온전히 알고,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있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거나 가치치기를 해주고 정결케 해줄 수 있는 정원사가 필요합니다.(2절 참조) 때때로 나무는 이 과정을 감당하기가 힘들겠지만, 그것만이 열매를 더 많이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과정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치치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옵니다. 병을 앓거나 신체적인 제약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슬픔을 겪거나 개인적인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슬픈 사건처럼 보이던 일이 우리가 주님을 더욱 의지하고 우리의 우선 순위를 다시 생각할 경우 우리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한 힘든 경험들은 우리가 좀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거나 더욱더 우리의 참포도나무인 구세주처럼 되게 할 것입니다.

가치치기에서 얻은 경험

저는 평생 동안 계속해서 가치치기가 필요했습니다. 예를 들면, 몇 년 전에 회사에서 승진할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저는 필요한 경험과 기술이 있었고 장기 근속자였기 때문에 분명 승진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당시 우리 회사에는 새로운 최고 경영자가 있었는데 그는 저와는 다른 우선 순위와 목표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부장들에게 주중뿐 아니라 주말에도 일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저는 당시 스테이크장이었으며 스테이크 회원들에게 가장 훌륭하게 봉사하고 교회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라던 승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저는 쓸쓸한 감정을 갖지 않기 위해 노력해야 했습니다. 얼마나 실망이 컸는지 모릅니다. 평소처럼 일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하도록 노력하며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자존심의 문제에 봉착하자 저는 제 자신의 능력이 의심스러웠습니다. 제가 알고 있던 다른 교회 지도자들은 부름과 시간에 쫓기는 회사 일을 모두 잘해내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약해지는 순간에 저는 심지어 교회에 그 많은 시간을 헌신하기로

한 것이 과연 올바른 선택이었는지조차 의문스러웠습니다. 그 후 저는 진정으로 중요한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신의 능력뿐 아니라 한계에 대해서도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교회 봉사를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과, 직장에서 추구하는 직책과 교회 부름 모두를 잘 관리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님께서 제게 선택을 해야 하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다고 생각합니다. 직장에서 남은 시간을 승진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한 것은 저를 주님의 사업에서 떼어 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돌이켜 보면, 교회를 위해 그 많은 시간을 바친 것이 제게 얼마나 큰 축복이었던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난 여러 해의 시간은 제 생애에서 가장 보람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감을 느꼈습니다. 저의 간증은 강화되었습니다. 지역에 있는 성도들과의 관계는 참으로 큰 축복이었으며 저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보다도 더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리스도께 확고하게 뿌리를 내림

우리는 일생을 통해 자신에 대한 가치치기가 계속되리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 현명하신 아버지께서 우리가 발전하는 것을 굽어보시고 세심한 보살핌으로 우리를 양육하신다는 것을 아는 일은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영적인 영양분을 섭취해야 합니다. 그분은 모든 진리와 모든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분 없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요한복음 15:5 참조) 그리스도와 그의 가르침에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그분의 빛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영의 열매가 맺히고,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요한복음 15:7; 갈라디아서 5:22~23 참조) 우리가 만일 모든 잠재력을 다 성취하고자 한다면, 매일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참포도나무인 그분께 확고하게 뿌리를 내릴 때까지 그분의 모범을 따르도록 합시다. ■



복원된 커틀랜드


새로 복원된 역사적 장소들은 1831년과 1838년 사이에 교회가 이 곳에서 얼마나 번창하고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상상하는데 도움이 된다.

초 기 말일성도들이 커틀랜드에 정착했을 때 그랬던 것처럼 스톤 브루크에는 또다시 깃물 공장이 서 있다. 깃물 공장(배경)은 역사적인 오하이오 커틀랜드 복원 사업의 일부로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가 재건한 여러 건물 가운데 하나이다. 예언자 요셉 스미스(오른쪽)는 새로 조직된 교회를 1831년에 뉴욕 주에서 오하이오 주로 옮겼다.

초기 개종자였던 뉴엘 케이와 엘리자베스 앤 휘트니의 작은 집(맨 오른쪽) 뒤에는 부엌이 있고 1층에는 침실이 있었다. 휘트니 자매의 고모는 자주 그 곳에서 묵었으며, 위층에서는 뉴엘, 엘리자베스 앤 그리고 자녀들이 잠을 잤다.

사진 촬영: 윌슨 시 앤더슨, 그림: 알빈 기턴스, 요셉 스미스



A large wooden barrel, likely used for aging spirits, is the central focus of the image. It is situated in a rustic wooden building with a complex beam structure. The barrel is made of vertical wooden staves held together by dark metal hoops. The background shows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with various wooden beams and structures, suggesting a traditional distillery or brewery setting.

뉴엘 케이 휘트니가 시작한 이 잿물 공장(배경)은 마을 전체의 경제적인 복리에 필요한 것이었다. 마을 사람들은 나무와 풀과 화로의 재를 잿물 공장에서 유용한 자원으로 바꾸었다. 강물은 재에서 잿물을 걸러내는 데 사용되었으며 그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가성 칼륨(아래 삽입 부분)은 한 통에 100불씩 팔렸다. 가성 칼륨은 비누, 유리, 종이, 화약 및 가죽 제품 등을 만드는 데 필요한 주요 원료였다.

1833년부터 1836년까지 성도들의 관심사는 현재 그리스도 공동체(복원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전신)에서 소유하고 있는 커틀랜드 성전의 건립이었다.(위 삽입) 예언자의 형 하이람이 큰 낫으로 부지에 있는 곡식들을 제거하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울타리의 못을 뽑아 내고 있었다. 나중에 일꾼들은 근처에 있는 채석장(중앙 삽입)에서 돌을 캐냈다. 성전 헌납 때는 하늘의 나타내심이 있었다. 1836년 4월 6일 구세주께서는 커틀랜드 성전에서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드리에게 나타나셨다. 그런 다음, 모세, 일라이어스, 엘리야가 나타나 신권의 열쇠들을 회복해 주었다.






위에 있는 지도는 역사적인 키틀랜드가 복원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말일성도들에 의해 뉴엘 케이 휘트니의 땅에 제재소(배경)가 세워졌으나 그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교회의 제재소였다. 그것은 재정이 빈약한 교회가 계시에 의해 알려진 모양으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방편을 제공했다. 그것은 또한 키틀랜드에 도착하는 많은 말일성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주었다. 물레바퀴(위 삽입)는 제재소의 톱과 선반을 움직이는 동력이 되었다. 제재소에서 나오는 목재는 성전과 다른 건물에도 사용되었다. 원래의 제재소는 1850년에 불타 버렸다.

학교(중앙 및 아래 삽입)는 활동의 중심지였다. 학생들은 운동장에서 공을 가지고 경기를 하거나 잭나이프 던지기라는 게임이나 구슬치기를 하고 놀았다. 학교에서 지급하는 것에는 철자 교본, 독본, 신수책과 석판이 포함되어 있었다. 학생들은 동석으로 자신들이 쓸 연필을 만들어 썼다. 일요일에는 성도들이 종종 학교에 모여 교회 모임을 가졌다.





상점(배경 및 중앙 삽입)과 잣물 공장을 소유하고 있던 뉴엘 케이 휘트니는 예언자 요셉 스미스와 엠마 스미스가 도착한 1831년 2월에는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였다. 휘트니 가족은 그들이 갖고 있던 자원들을 교회에서 넉넉하게 사용하도록 했다. 상점(위)에서 생활하는 동안 예언자는 현재 교리와 성약에 기록되어 있는 중요한 많은 계시를 받았다. 예언자 학교가 소집된 곳은 상점 2층이었다. 참으로 주님은 커틀랜드에서 예언자가 교회의 기초를 놓도록 도우셨다.

존 존슨은 휘트니 상점 근처에서 여관(아래 삽입)을 운영했다. 나중에 존슨 가족은 결국 교회를 떠났지만 그들은 선을 위해 중대한 영향을 미친 초기 개종자들이었다. ■



어느 목사와 함께한 성탄절

블레인 케이 게링

때는 1967년이었으며, 나는 독일 힐데샤임에서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었다.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었으며 크리스마스 이브가 일요일이라서 멋진 모임과 다른 적절하고 특별한 축하 행사들이 계획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는 마음이 들떠 있었다.

그러나 성탄절을 2주 남겨 놓고 나는 렌즈버그로 이동하라는 명을 받았다. 동반자 파델 장로와 나는 그 곳이 낯선 지역이어서 회원들이 어떤지, 또 성탄절을 기념하는 모임을 어떻게 가질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우리는 곧 렌즈버그 지부에는 회원도 몇 안 되고 크리스마스 이브를 위한 특별한 모임도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다. 교회 회원인 우리 숙소의 여주인은 성탄절에 저녁을 함께 먹자고 제의했다. 나는 그것이 이번 성탄절의 전부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상황은 곧 바뀌었다.

전에 이 곳에 있던 선교사들은 우리에게 그들이 방문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적힌 명단을 남겨 놓았다. 그 가운데는 선교사들이 다시 방문해 주기를 바라는 사람들의 이름도 있었다. 성탄절에는 사람들이 너무나 바빴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들을 방문한다는 것은

동 반자와 나는 쿨베르트 목사 옆에 앉아 그의 목회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런 다음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말했다.



매우 힘든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이름들을 토대로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판단한 가운데, 명단에 있는 사람들을 방문하기 시작했다. 프라우 뤼베르트의 가정을 방문했을 때 우리는 훌륭하고 쾌활한 부인을 만났다. 그녀는 우리를 안으로 안내했으며 우리는 그녀가 그 해 초에 세상을 떠난 루터교 목사의 미망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아들 역시 목사였다. 그는 성탄절을 보내기 위해 집에 올 예정이었으며, 그것은 그들이 남편과 아버지 없이 단 둘이 보내는 첫 번째 성탄절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부인은 눈을 반짝이며 우리에게 크리스마스 이브를 그들과 함께 보내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다른 계획이 없었던 우리는 그에 동의했다.

성탄절 이브가 되었으며 우리는 훌륭한 성찬식을 가졌다. 모임에서 우리는 구세주에 관해 말씀을 했으며 성탄절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다. 동반자와 나는 성찬 집행을 도우면서 구세주께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바치신 것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모임을 마친 후에 우리는 루터 교회에서 뤼베르트 가족을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공원을 가로질러 걸을 때 막 눈이 내리기 시작했으며 우리는 잠시 멈추어서서 자녀와 부모들이 연못에서 스케이트 타는 것을 지켜보았다. 우리는 여기저기서 성탄절 불빛이 반짝이는 것을 보았으며 성탄 전야 예배를 알리는 교회의 종소리도 들었다.

뤼베르트 가족은 교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는 목사의 설교를 듣고 캐럴보다도 더 오래된 교회에서 성탄절 캐럴을 부르는 동안 훌륭한 영을 느꼈다. “고요한 밤”을 원어로 부르자

모임은 더욱 특별해졌다.

예배가 끝난 후 우리는 뤼베르트 목사의 차를 타고 그들의 집으로 갔다. 뤼베르트 부인은 정찬을 위해 거위를 준비했으며, 그녀가 음식의 마지막 손질을 하는 동안, 동반자와 나는 뤼베르트 목사 옆에 앉아 그의 목회에 대해 물어 보았다. 그는 기독교회들을 연합시키기 위한 운동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가에 대해 말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운동에 참여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그 운동에 적대감을 갖고 반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우리는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해 말했다. 그에게 물몬경에 관한 이야기와 어떻게 교회가 회복되었는가에 대해 말해 주었다. 살아 계신 예언자에 대해 말했으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말하고 난 후에 구세주로서의 그분에 대한 간증을 했다. 우리 사이에는 아무런 적의도 없었다. 상대방의 믿음을 알보는 일도 없었다. 지금 그 일을 생각하면 니파이서 25장 26절에 있는 말씀이 떠오른다. 우리는 실제로 그 크리스마스 이브에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그리스도를 기뻐”했다. 우리의 주요 관심사는 그리스도였다. 그분은 우리가 함께 모여 있는 목적이었다.

음식을 축복하기 위해 머리를 숙였을 때 뤼베르트 목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종 된 우리가 예수를 찾는 사람들에게 인도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축복을 간구했다. 온갖 양념을 발라 구운 거위와 특별한 독일식 디저트로 차려진 음식은 참으로 훌륭했다.

독일 관습에 따르면 부모가 크리스마스 트리가 새로 장식되어 있는 다른 방으로 가서 트리에 촛불을 켜다. 그런 다음에야

자녀들은 그 방으로 들어가 트리와 선물을 볼 수 있었다. 뤼베르트 부인은 거실로 가서 커다란 미닫이 문을 닫았다. 잠시 후 부인은 문을 열고 “아들들”을 들어오게 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트리의 촛불에서 비추는 은은한 불빛만 있는 방으로 들어서자 뤼베르트 부인은 동반자와 나에게 선물을 주었다. 선물은 사탕 몇 개와 렌즈버그에 대한 기념 책이었다. 그녀가 아들에게 선물을 주고 난 다음, 그들은 잠시 남편과 아버지를 생각하기 위해 묵념했다. 그 후에 우리는 성경에서 누가복음을 펴 성탄절 이야기를 읽었다. 영은 우리 각자의 마음을 감동시켰고 다시 한번 그 구절에 있는 메시지를 증거해 주었다. 크리스마스 캐럴을 부를 때 그 가사는 우리 각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생애, 가르침, 그리고 가장 소중한 선물, 즉 그분의 속죄 희생과 우리가 나는 사랑에 대해 증거해 주었다.

그날 밤 우리가 버스 정류장까지 가는 동안 나는 공중을 날아가듯 행복했다. 산타클로스는 오지 않았다. 선물을 사느라고 분주하지도 않았다. 어떤 공연에 참석하거나 전통적인 성탄절 영화를 본 것도 아니었다.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가족이 보낸 성탄절 선물 꾸러미는 이동 관계로 배달이 지연되었다. 그러나 나는 이제까지 보낸 그 어느 크리스마스 이브보다도 더 행복한 시간을 보냈다. 그것은 내게 있어 생전 처음, 온전히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춘 성탄절이었다. 내가 전한 유일한 선물은 그분에 대한 나의 간증이였다. ■

블레인 케이 케링은 솔트레이크 이스트 밀 크리크 스테이크 이스트 밀 크리크 제4와드 회원이다.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어라!”

셀리아 아우구스토 데 수자

우리 가정에서는 10월 말경이나 11월 초에 성탄절을 위해 집을 장식하는 전통이 있었는데 그것은 성탄절의 영이 좀더 일찍 찾아와 오래 머물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러나 1993년에는 그렇게 되지 않았다.

10월에 나는 임신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우리에게 이미 네 살 된 딸과 두 살 된 아들이 있었으며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다. “아기 한 명을 어떻게 더 키운다?” 하고 생각했다. 임신 초기에 입덧이 시작되었을 때 나는 주님께 불평, 불만을 늘어놓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 여느 해처럼 집도 장식하지 않았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다. 그 해에

내게는 성탄절이 없을 것 같았다.

매년 어머니는 12월 25일이면 가족을 불러모으기 위해 특별한 연회를 여셨다. 그러나 그 해에 나는 다른 모든 사람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있긴 했으나 먹을 수가 없었다. 모든 것이 싫었다. 너무나 슬프고 괴로운 나머지 나는 가족들과의 대화에도 참여하기가 힘들었으므로 곧 집으로 돌아왔다.

몇 시간 후에 오빠가 우리 집으로 뛰어와서 아버지가 편찮으신 것 같다고 했다. 나는 급히 아버지 댁으로 갔으며 아버지가 호흡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팔과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심장 마비였다. 나는 오빠에게 아버지를 응급실로 옮기자고 했다.

나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남편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지 않게 기도해 달라고 했다. 남편은 기도를 해야 할 사람은 나라고 했다. 그러나 나는 기도하지 않은 지가 꽤 여러 날이 지났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 것 같았다. 슬기롭게도, 남편은 내게 지금이

나는 급히 아버지 댁으로 갔으며 아버지가 호흡도 제대로 하시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 그는 팔과 가슴에 심한 통증을 호소했다. 심장 마비였다.

그분께 용서를 구하기에 가장 좋은 때라고 말했다.

나는 비통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면서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는 병원으로 가는 도중 목숨이 위태로웠으며 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아버지가 그 해 성탄절에는 돌아가시지 않도록 해 달라고 간구했다. 내가 필사적으로 주님께 용서를 간구할 때, 내 귀에 다음과 같이 속삭이는 음성이 들렸다.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어라”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축복사의 축복문을 읽을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그러나 속삭임은 계속되었으며 축복문을 읽으라는 느낌이 강하게 왔다.

나는 일어나 축복문을 찾아 읽기 시작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축복문에서 나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와 지상의 부모의 사랑하는 딸이라는 사실이 여러 번 언급되어 있는 것과 내가 지상의 부모를 공경할 경우 하나님은 그들의 생명을 길게 하시고, 그들은 내 자녀가 성장하는 것을 볼 기회를 갖게 될 것이며 내 자손과 함께 기뻐할 것이라는 축복이 있음을 깨달았다.

축복문을 읽으면서 나는 이해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아직 태어나지 않은 내 아기를 보시지 못했으며 아직 그 아이가 자라는 것도 보시지 못했다. 아버지가 그때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축복문은 그날 내가 구하는 답을 주었다. 나는 얼마 후 다시 한번 무릎을 꿇었다. 이번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내가 안고 있는 특별한 아들 후일예르메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서였다.

때로 우리는 너무나 근시안적이고 이기적이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친절과 사랑으로 우리가 시련으로부터 배우고 성장하도록 하신다. 나는 사랑하는 세 자녀와 남편, 그리고 부모님과 함께 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에 매일 감사드린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시며 그분들이 나를 사랑하심과 나에게 큰 인내심을 가지고 계심을 안다. ■

셀리아 아우구스토 데 수자는 브라질 상파울루 스테이크 빌라 소니아 워드 회원이다.

트럭 운전사의 선물

노르마 제이 브로드헤드

“**그**년 성탄절에는 일을 안 해도 될 것 같소.” 하고 남편 **켄**이 말했다. 그는 트럭 운전사였으며 여러 해 동안 아이들과 나는 남편의 일 때문에 부분적인 성탄절을 보내거나 뒤늦은 성탄절을 보내곤 했다. 그러나 이제 자녀들 모두 결혼을 했으므로 우리는 그들에게 전에 우리가 했던 것처럼 각자의 가정에서 성탄절을 보내라고 권고했다.

나는 성탄절에 일을 해야 하는 아버지들을 생각하고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 “당신이 성탄절에 우리와 함께할 수 없었을 때 어땠는지 기억하세요? 당신이 일을 하고 그 대신 어린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집에서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내게 된다면 난 괜찮아요.”

“정말 괜찮겠소? 당신 혼자 있어야 할

텐데.”

“괜찮아요.”

남편은 배차원에게 성탄절에 자신이 일을 할 테니 젊은 아버지 한 사람을 집에 있게 하라고 말했다. 옆에 서 있던 다른 운전사가 남편의 대화를 들었다. “당신이 그렇게 한다면 나도 그렇게 하겠소. 나도 집에 아이들이 없거든.” 하고 그가 말했다.

그래서 그렇게 조정이 되었다. 그런데 다른 운전사가 그것을 듣고는 그도 성탄절에 일을 하겠다고 자원했다. 그래서 세 명의 나이 든 운전사들이 우리 고장의 날씨 중에서 가장 고약한 날씨에 3일 동안 일을 하여 어린 자녀를 둔 세 명의 아버지들이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나는 눈이 내리는 것을 보면서 남편이 그 추운 날씨에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상기했다. 나는 우리 열 명의 자녀들과 그들과 함께했던 성탄절, 특히 아이들이 아빠도 없이 보내야 했던 성탄절을 생각해 보았다.

덕분에 그 3일 동안 나는 책을 읽고, 바느질을 하고, 텔레비전의 성탄절 특별 프로그램을 보고, 풀어놓은 선물을 보면서, 그리고 남편에 대한 고마움과 그가 다른 사람에게 준 성탄절 선물에 감사하면서 평화롭고 행복한 성탄절을 보냈다. ■

노르마 제이 브로드헤드는 솔트레이크 밀크리크 스테이크 밀크리크 제5워드 회원이다.

남편과 다른 두 명의 나이 든 운전사들이 우리 고장의 날씨 중에서 가장 고약한 날씨에 3일 동안 일을 하여 어린 자녀를 둔 세 명의 아버지들이 가족과 함께 성탄절을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계절에 구애 받지 않는 선물

다윈 비 크리스틴슨 장르
칠십인 정원회



우정과 사랑 그리고 봉사의 선물을 주기 위해 성탄절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형 과 누나, 그리고 저는 아이다호 주 블랙풋의 농촌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그리덕덕하진 않았지만 그것이 성탄절에 대해 설레는 마음을 갖게 하는 데 방해가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일찍 일어나 살그머니 엄마 아빠 방으로 들어가서 일어나도 되느냐고 묻곤 했습니다. 그들은 피곤한 목소리로 “얘들아, 이제 겨우 세 시다. 다시 가서 자거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침대로 돌아가 날이 새기를 기다리고 기다리면서 생각했습니다. “어휴, 이제는 시간이 많이 갔겠지.” 다시 일어나서 부모님께 가 묻습니다. “엄마, 아빠, 지금 일어나도 돼요?”

“안 돼. 이제 겨우 3시 10분이야. 다시 가서 자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탄절을 기념하기 위해 결국 잠자리에서 일어났을 때는 무척 긴 시간이 흐른 것 같았습니다.

그 시절, 우리는 성탄절을 기념함으로써 구세주의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선택을 하고 생애에서 훌륭한 많은 선물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의 선물

참된 우정은 그러한 선물들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저는 성장하는 동안 여러 명의 좋은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은 우리가 친하게 지내도록 만들었으며, 특별한 지도자들은 우리가 의를 선택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에바 맨워닝이라는 훌륭한 주일학교 교사가 있었는데 그녀는 소란스럽고 거친 아이들을 다루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를 잘 잡아 주려는 자매들은 많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그 자매님은 그랬습니다. 그 자매님의 남편은 소년단원인 우리를 잘 보살펴 주고 독수리 기장을 받는 소년단원이 되도록 도와 주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선택, 특별히 선교사로 봉사하도록 선택하는 일을 도와 준 좋은 친구들과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브라질의 선물

선교사로 처음 브라질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이름답고 푸른 그 나라와 개방적이고 사랑이 많고 겸손한 브라질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일은 종종 힘들었습니다. 다른 교회의 대표들은 어린이들을 시켜 우리에게 돌을 던지게 하곤 했습니다. 우리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이웃으로부터 배척을 당하기 때문에 교회에 들어오기가 어려웠습니다. 1950년대 후반 브라질에 아직 스테이크가 하나도 없었을 때의 상황은 그러했습니다.

현재는 거의 200개의 스테이크가 있습니다. 선교부장과 지역 회장단의 일원으로 가족과 함께 다시 브라질로 갔을 때 기적적인 교회의 성장을 보는 것은 참으로 큰 영적인 축복이었습니다.

첫 번째 선교 사업을 마치고 고향으로 가는 배를 탔습니다. 저는 갑판에 서서 수평선 너머로 사라지는 브라질을 보며 울었습니다. 늘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으로 설레일 뿐 작별을 고하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사랑의 선물

선교 사업을 마치고 귀환한 후에 저는 스테이크 대회에서 산드라 졸린 라이언이라는 아름다운 여성을 만났습니다. 우리는 둘 다 포카텔로에 있는 아이다호 주립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고 블랙풋에 살고 있었습니다. 통학을 하면서 가장 좋은 일은 산드라와 제가 같은 그룹이 되어 함께 차를 타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녀가 하나님의 소중한 딸이라는 것을 알았으며 저의 결혼 상대자로 적합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루는



구 세주와의 관계를 발전시킴으로써 우리는 훌륭한 선택을 하고 생애에서 훌륭한 많은 선물들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영 원한 결혼을
하는 것은
아내와 제가
서로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습니다.

차에서 그녀 옆에 앉아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선교사로 나가 있는 남자 친구에게
절교장을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우리는
결혼을 하게 될 테니까요.” 간단한 일은
아니었지만 2년쯤 후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우리는 12월에 약혼을 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성탄절을 더욱 의미 있는 것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영원한 결혼을 하는 것은 우리가 서로에게 줄 수
있었던 가장 훌륭한 선물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저와
자녀, 그들의 배우자, 그리고 손자 손녀들에게
사랑의 선물을 줄 때 참으로 훌륭한 축복이 됩니다.
그녀가 보여 주는 사랑은 우리 가족을 단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신권의 권세의 은사

결혼하고 몇 년이 지난 후에 아내와 저는 세
번째 아이를 낳았습니다. 스티븐이라는
아들이었는데 성탄절이 되기 3일 전에
태어났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 호흡 장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작고 용감한
영이었습니다. 그는 살기 위해 애썼으나 의사들은
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습니다. 감독님은
회원들에게 함께 금식을 하도록 권고하셨습니다.

그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에 있었던 가장 큰
선물은 아기에게 축복을 줄 수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축복을 준 후에 저는 아내가 있는
병실로 가서 스티븐이 괜찮을 테니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전하라는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성탄절 아침이 되자 의사들은 우리에게 아들이
괜찮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몰랐습니다.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저는 신권의 권세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스티븐이 살아난 것이 우리 가족에게 주어진 가장
큰 성탄절 선물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위대한 선물

우리가 성탄절에 받는 위대한 선물은 구세주의
탄생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아버지로부터
우리에게 온 선물입니다. 우리가 성장하는 동안
구세주 가까이에서 생활하는 것은 훌륭한 결정을
내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어렸을 때 간증을 키우는 것은 늘 그분의 기적적인
희생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세주께 가까이하는 생활을 하고 그분이 항상
그곳에 계시며, 언제나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은 중요한 일입니다. 그분의 모범을
따르고 그분의 가르침에 따르는 것은 성탄절
절기에 훌륭한 느낌과 놀라운 축복을 영원히
가져다줍니다. 저는 구세주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간증드립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즐거운 성탄절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

알고 계십니까?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살아 계신 그리스도: 사도들의 간증”을 읽거나 외우는 것은 이번 성탄절에 여러분이 구세주께 좀더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그것은 **리아호나**(2000년 4월호, 2~3쪽 참조)나 **소책자 청소년의 힘을 위하여** 뒷면에서 찾을 수 있다.

조지아 존스보로 스테이크 화이트 워드 청년들은 “살아 계신 그리스도”를 암기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 그 청년들은 구세주에 대해 배우면서 영을 느꼈으며, 스테이크 청년 야영 간증 모임에서 사도들의

선언문을 암송하여 다른 청년들을 놀라게 했다.

그들은 사도들과 같이 이렇게 간증했다.

“그분의 삶은 베들레헴에서 시작되지도 않았고 갈보리에서 끝나지도 않았으며... 그분은 아버지의 장자였고 육신을 입은 독생자였으며 세상의 구속주이셨습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이요 생명이요 소망이십니다. 그분의 길은 인생에서는 행복으로 인도하고 장차 올 세상에서는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그 어느 것으로도 비길 데 없는 선물로서 거룩한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리아호나**, 2000년 4월호, 2~3쪽)



지도자에게 주는 조언

여러분 자신을 주는 것이야말로 참된 성탄절의 정신이다. 우리의 완전하신 지도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가장 큰 은사인 영생의 은사를 얻을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을

주셨다.(교리와 성약 14:7 참조) 금년 성탄절에 구세주의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읽을 때 지상에서 행하신 그분의 성역에 관한 이야기도 일부 읽는다. 이기심 없이 주시는 그분의 모범은 봉사하는 방법을 찾는 여러분에게 지침이 될 것이다.



큰 기쁨의 좋은 소식

“세속적인 기록이든
성스러운 기록이든
밤낮도록 양떼를
지키고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전한 소식만큼

의미심장한 것도 없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누가복음 2:10~11)”

제임즈 이 파우스트 부대관장, 대관장단 제2보좌, “사랑의 모범”, **리아호나**, 1999년 12월호, 3쪽.

12월에 일어난 일

다음은 교회사에서 12월에 일어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다.

1805년 12월 23일: 요셉 스미스 이세가 버몬트 주 샤론에서 출생했다.

1847년 12월 5일: 아이오와 케인즈빌에서 대관장단이 재조직되었으며 대관장에는 브리감 영, 보좌에는 히버 시

김볼과 윌라드 리차즈가 부름 받았다.

1895년 12월 9일: 후아레스 콜로니아에 멕시코 최초의 스테이크가 조직되었다.

1978년 12월 9일: 교회에서 최초의 전임 선교사가 가나에 도착하여 89명에게 침례를 주었다.



위에서부터 시계 방향: 그림: 히인리히 호프만, 그리스도와 젊은 부자 관원 중 일부, 그림: 브루스 마틴, 목자들에게 나타난 천사, 사진 촬영: 돈 엘 설, 삽화: 폴 만, 그림: 알빈 기틴스, 요셉 스미스, 그림: 제임스 제이 터숏, 성전에서 못 걷게 된 이를 고치심

리아호나

2003년 12월호

활용하기

가정의 밤을 위한 제언

-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12쪽: 올슨 에프 휘트니 장로는 꿈에서 본 잠자는 사도들이 젊은 선교사로서 봉사하는 자신의 모습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았다. 가족들에게 “그들의 위치에서 잠들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게 한다.
- “열 가지 너에 대해 사랑하는 것”, 10쪽: 성탄절에 가족에게 준 에릭의 선물에 대해 읽고 가족들이 줄 수 있는 다른 선물들에 대해 토론한다.
- “쌀을 곳이 없도록 붓지 아니하나 보라”, 18쪽: 이 이야기들 가운데 한두 가지를 나눈다. 십일조의 법에 관한 여러분의 간증을 나눈다. 가족들에게 이 율법에 순종했을 때 받은 축복에 대해 말하도록 부탁한다.
- “하나님의 증인이 됩시다”, 친15쪽: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는 선교사들을

거부하다가 아이어링 장로가 그에게 많은 의미가 있는 어떤 것을 그들에게 준 것에 대해 감사를 전하는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 가족들에게 이 이야기가 교회에 대해 좀더 알도록 친구들을 초청할 때 갖게 되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질문한다.

이번 호의 주제들

친=친구들	
가르침	48
가정의 밤	48
가족 관계	6, 10, 26
간증	12, 26
개종	친6
개척자	친6
교회사	32, 47
모범	2
병고침	40, 44
봉사	6, 40
사도들	12, 친10
사랑	6, 10, 40, 44
선교 사업	12, 40, 44, 친10, 친15
성약	친15
성전과 성전 사업	24, 친16
성탄절	1, 2, 6, 10, 26, 40, 44, 친2, 친4, 친8
속죄	12
신약전서	29, 친10
십일조	18, 25
역경	29
예수 그리스도	1, 2, 12, 29, 44, 47, 친2, 친4
예언자들	2
요셉 스미스	32
우선 순위	29
우정	44
자립	25
지도력	47, 48
축복	18, 25
축복사의 축복	40
평화(평온)	1
희생	40, 친6

성탄절 경험 기사 모집

금년 성탄절에는 무엇을 주시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누고 싶은 훌륭한 성탄절의 경험이 있으시면 우리에게 보내 주십시오. 익명으로 봉사하셨습니다? 구세주께 어떻게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까? 리아호나 독자들과 함께 여러분의 경험을 나누시기 바라는 분은 다음 주소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cur-liahona-imag@ldschurch.org 혹은 Christmas Experiences, *Liahona*, Room 2420, 50 East North Temple Street, Salt Lake City, UT 84150-3220, USA.

친구들



세상의 빛



전세계의 어린이들에게 보내는 대관장단 성탄절 메시지

“**유** 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마태복음 2:2) 오래 전에 동방박사들은 인류의 구세주가 계신 곳으로 그들을 인도해 준 별을 따라왔을 때 그렇게 말했습니다.

초라한 환경에서 태어나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빛의 근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빛을 따르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면서 그분을 바라볼 때 우리는 평안과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속주이며 친구이시라는 것을 간증합니다. 그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그분은 살아 계십니다. 그분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요한복음 14:19 참조)

사랑하는
대관장단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비키 에프 마쭈모리

“어느 때 어느 곳에서나 범사에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 ...”

(모사이아서 18:9)



크리스마스란 뭘까요? 대관장단 제1보좌인 토마스 에스 몬슨 부대관장님은 크리스마스란 어린이, 기억하는 것, 주는 것, 그리고 예언의 성취라고 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무엇입니까?” 리아호나, 1998년 12월호, 2~6쪽 참조)

크리스마스는 어린이입니다. 그것은 기쁨과 흥분과 희망입니다.

크리스마스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 대해 지나라고 하신 사랑을 기억하고 나타내 보이는 시간입니다.

크리스마스는 주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는 무엇인가를 줍니다. 어떤 때에는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몬슨 부대관장님은 우리가 “주님과 구세주이신 그분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그분께 감사의 선물을” 드린다고 하셨습니다. (리아호나, 1998년 12월호, 6쪽)

크리스마스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천사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누가복음 2:11)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셨을 때 새로운 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이해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의미하는 바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배우고 그분을 따를 수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선물, 즉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때입니다. 항상 그분을 따르겠다는 모범을 보임으로써 이 선물에 대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달력의 날짜 헤아리기

8~9쪽을 떼어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인다. 5쪽에 있는 숫자가 표시된 별들을 오려 낸다. 12월이 되면 매일 별에 표시되어 있는 성구를 해당 날짜에 읽는다. 질문에 대답하거나 활동을 한다. 그런 다음 떼어 낸 8~9쪽 장면에 별을 붙인다.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겠다는 것을 생각나게 해 줄 수 있는 곳에 그것을 놓아 둔다.

함께 나누는 시간 제언

1. 여러 장의 종이에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 노래에 있는 구절들을 적는다. (2003년 함께 나누는 시간 및 어린이 성찬식 발표 개요 참조) 어린이들에게 종이를 들고 방 가장자리에 둘러서게 한다. 노래가 가르치는 몇 가지 원리들, 예를 들면,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이 된다는 것은 교회가 요셉 스미스에 의해 회복되었음을 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내용에 대해 토론한다. 회복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같은 방법으로 다른 구절들에 대해 토론한다. 다른 어린이들에게는 그들에게 강한 느낌을 갖게 해 주는 종이 옆에 서라고 한다.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부르고 어린이들에게 해당 구절을 부를 때 그것을 찾아 보게 한다. 간증을 전하는 마음으로 노래를 부르라고 한다.

2. 어린이들이 선교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알도록 돕는다. 한 명의 어린이를 택하여 회원 선교사가 되게 하고 30초 동안 가능한 한 많은 초등회 어린이를 만나 보게 한다. 그는 서 있는 다른 어린이나 성인에게 가까이 간다. 회원 선교사는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면서 말한다. “안녕하십니까? 제 이름은 _____이며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 회원입니다.” 회원 선교사는 몇 명을 만났는가? 다음과 같이 방법을 약간 바꾸어 이 활동을 계속한다. 회원 선교사와 악수를 하지마자 그 사람은 회원 선교사가 되어 다른 사람과 악수를 하기 시작한다. 이제 몇 사람을 만났는가? 우리는 복음 원리에 따라 생활함으로써 회원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다음 구절들을 읽는다. 마태복음 7:24~27; 마가복음 12:41~44; 누가복음 10:25~27; 요한복음 5:39. 훌륭한 회원 선교사가 될 수 있는 몇 가지 방법들을 열거한다. 어린이들을 여러 그룹으로 나누고 각 그룹으로 하여금 그들이 지금 훌륭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보여 주는 역할극을 담당하게 한다. 선교 사업에 관한 노래나 찬송가를 부른다. ●

1

누가복음 1:26~33
누가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해
주었는가?

2

마태복음 1:18~21
왜 마리아와 요셉은
아기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가?

10

마태복음 2:7~10
헤롯은 동방박사들을
어디로 보냈는가?

16

마태복음 5:43~4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개인적인 기도를 할 때
여러분에게
불친절한 사람을 위해
축복을 간구하도록 한다.

21

마가복음 10:13~14
예수 그리스도는 어린이들이
그분께 중요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
주셨다. 형제, 자매,
또는 부모에게 이야기를
읽어줌으로써 여러분의
사랑을 보인다.

3

누가복음 2:3~6
왜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가
태어나기 전에
베들레헴으로
갔는가?

4

누가복음 2:7
왜 마리아는 아기 예수를
구유에 눕혔는가?

11

마태복음 2:11
동방박사들은 어린 아기가 구세주임을
알았다는 것을 어떻게 나타내
보였는가?

5

누가복음 2:8~11
천사는 누구에게 구세주의
탄생을 알렸는가?

12

마태복음 2:13~15
왜 요셉은 마리아와
예수를 애굽으로
데려갔는가?

17

마태복음 6:3~4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을 도와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은밀한 행사를
하도록 한다.

22

마태복음 22:37~39
예수 그리스도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가르치셨다.
가족과 함께 이웃을 위해
무언가 좋은 일을 한다.

6

누가복음 2:12
아기 예수를 누일
요람으로
사용된 것은
무엇이었는가?

13

마태복음 5:6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의를 구함으로써
축복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적어도 10분 동안 경전이나
경전 이야기를 읽는다.

23

요한복음 13:34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다. 부모님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그들을 도와 드림으로써
사랑을 나타내 보인다.

24

이사야 9:6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는 것은
기쁨을 위한 시간이다. 일지에
그분께 대한 여러분의
느낌을 적는다.

7

누가복음 2:13~14
천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누가
함께했는가?

18

마태복음 7:7~8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될
것이라고 가르치셨다. 자청하여 가족
기도를 드린다.

19

마태복음 7:12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고
가르치셨다. 선교사나
조부모처럼 멀리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다.

8

누가복음 2:15~17
목자들은 천사가 떠난 후에
어디로 갔는가?

14

마태복음 5:9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다른
사람들과 다투지 않음으로써
가정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될 수 있다.

20

누가복음 17:12~19
예수 그리스도는 그분께 감사를 드린
나병환자를 칭찬하셨다. 초등학교
선생님이 가르쳐 준 것에
대해 감사하는 편지를
쓰거나 그림을 그린다.

9

마태복음 2:1~2
동방박사들은 예수가 태어난 것을
어떻게 알았는가?

15

마태복음 5:16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의를 택함으로써
모범을 보인다.

닐스의 침대

다이앤 엘 맨검
실화에 근거함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 전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마태복음 19:29)

닐스는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더니 드디어 크게 부서지는 소리를 들었다. 가족들이 급히 일어나서 닐스의 침대에 있던 이불과 받침판에 묻혀 있는 두 선교사를 찾아냈다. 그의 침대는 복음을 가르치기 위해 스웨덴에서 봉사하는 건장한 이 두 사람에게는 너무 작았다.

그들은 저녁 식사 시간이 막 지난 후에 와서 너무 늦게까지 있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그들에게 자고 가라고 하셨다. 어머니는 닐스를 바닥에서 자게 하고 그 대신 그들이 닐스의 침대를 사용하게 했다.

놀란 닐스는 부서진 침대를 바라보았다. 어머니가 속삭였다. “걱정마라. 아빠가 새 것을 만들어 주실 거다.”

그러나 아빠는 시간이 없어 보였다. 그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저녁에는 선교사들과 이야기를 했다. 그는 물몬경이 성경에서 이해할 수 없었던 것들을 모두 설명해 주었다고 말했다.

곧 엄마, 아빠, 피터, 보틸라, 그리고 뱅트는 말일성도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다. 닐스와 아기인 누이 동생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기다려야 했다. 그들은 행복했지만 마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특히 할머니와 할아버지는 화가 나신 것 같았다. 닐스의 가족은 교회의 다른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미국으로 가기로 했다.

“닐스야, 넌 미국을 좋아하게 될 거야. 미국에 가면 새 침대를 구해 주마.” 하고 어머니가 말했다.

미국행 배는 스웨덴과 덴마크의 교회 회원들로 이미 만원을 이루고 있었다. 닐스는 두 개의 커다란 물통 위에서 잤다. 그는 배가 앞 뒤로 흔들릴 때마다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그는 빨리 육지를 보고 또 고정된 침대에서 자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닐스가 미국에서 처음 잠을 잔 침대는 고정된 것이 아니었다. 배에서 내린 후에 그들은 기차를 탔다. 닐스는 기차

바퀴의 덜컹거리는 소리를 들으면서 잠을 잤다. 그들은 카운슬 블러프스라는 곳에서 내려 소들이 끄는 포장마차에 짐을 실었다. 닐스는 배가 만원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이것은 더 심했다.

“매트리스나 베개는 실을 곳이 없습니다. 옷과 이불만 꾸리십시오.”라고 책임을 맡은 사람이 큰소리로 말했다.

“베개도 없고, 매트리스도 없고, 침대도 없고” 닐스는 한숨을 쉬었다.

그의 가족은 어느 미망인과 한 신혼 부부와 함께 포장마차를 사용했다. 닐스와 그 가족은 매일 밤 땅바닥에서 잤으며 솔트레이크시티에 도착할 때까지 매일 먼지 나는 길을 걸었다. 일단 그 곳에 도착한 그들은 다른 가족과 함께 같은 집을 썼다.

계곡에서 그 가족이 처음 갖게 된 집은 언덕 중간쯤에 땅을 파서 만든, 방바닥이 흙으로 된 작은 방이었다. 그들은 낮에는 들들 말아서 둘 수 있는 담요에서 잠을 잤다. 그들은 더 영구적인 집을 갖고 싶어했다.

결국 아빠는 그들이 소유할 수 있는 약간의 땅을 찾아냈다.

그들은 다시 한번 모든 짐을 꾸려 마차에 싣고 유타 주 현츠빌이라는 곳으로 갔다. 그곳에 있는 계곡은 푸르렀으며 키가 큰 풀들로 가득 차 있었다. 언덕은 나무들로 뒤덮여 있었다. 그들의 두 번째 집은 비가 새는 버드나무 지붕에 옥수수 대로 만든 매트리스를 바닥에 깔 영성한 오두막 집이었다.

드디어 성탄절이 되었을 때 그들은 나무로 만든 바닥에, 지붕에 소나무 판자를 댄, 진짜 침대가 있는 통나무 집으로 이사를 했다. 스웨덴을 떠난 지 4년 반 만에 닐스는 자신의 새 침대에서 누비 이불을 덮고 잠을 잤다. 그것은 움직일 때 삐걱거리는 소리가 조금 나서 밤이면 부서진 옛날 침대를 생각나게 했다. 얼마나 변했는가! 닐스는 미소를 지었다. 어쩌면 그도 커서 선교사가 되어 스웨덴으로 갈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게 된다면 작은 침대를 조심할 것이다.

세월이 흘러 닐스 피 로프그렌은 선교사가 되어 정말 스웨덴으로 돌아갔다. ●



크리스마스가 뭐예요?

활동과 유의 사항은
친구들 4쪽과
5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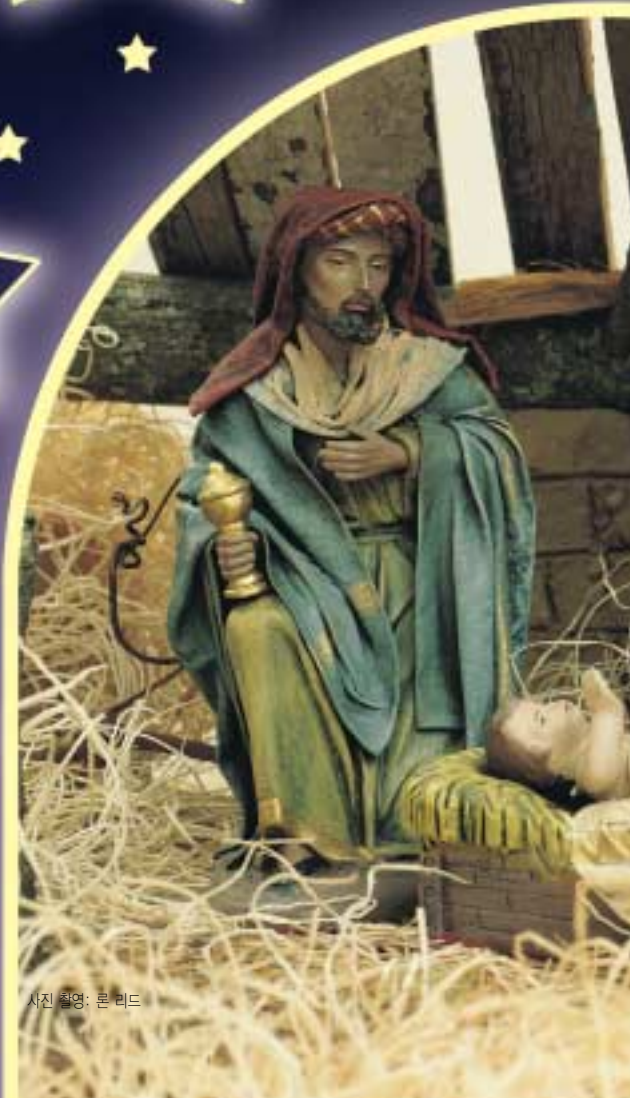


사진 촬영: 론 리드



21

20

19

16

15

14

13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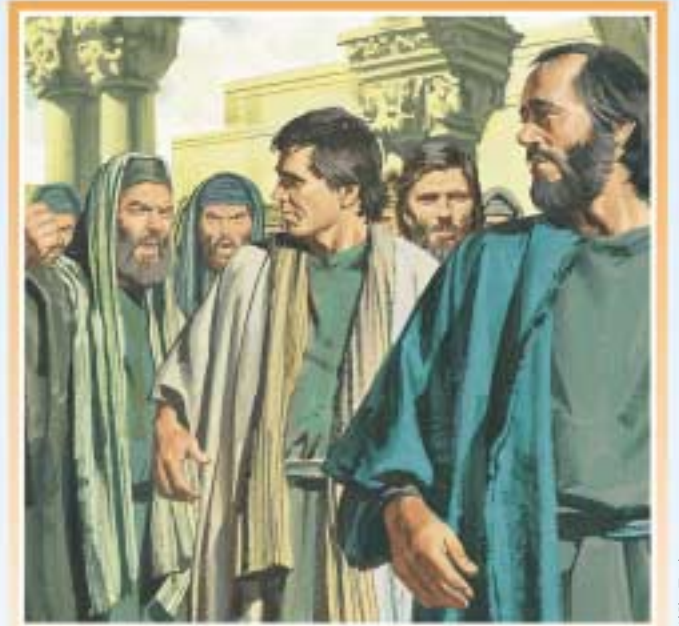
6

4

5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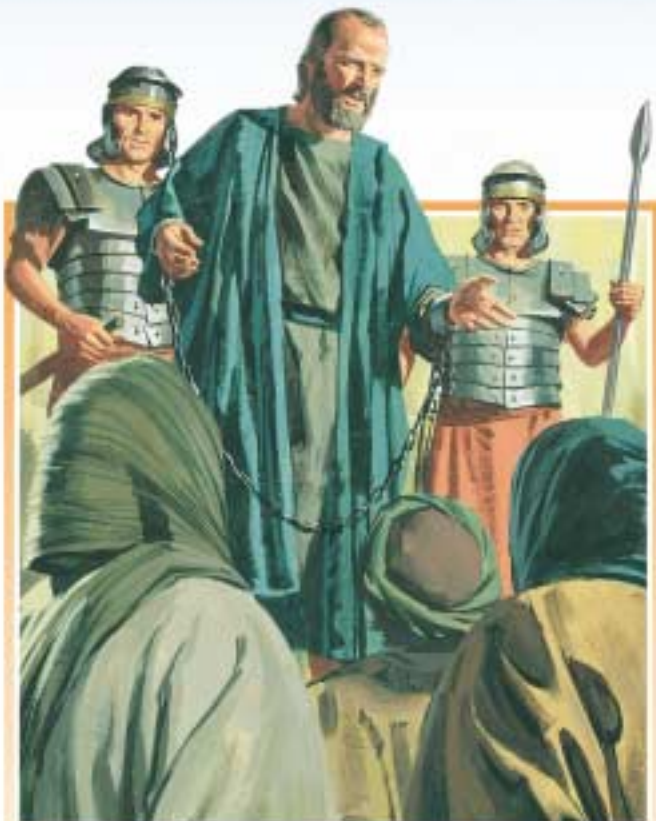
자신의 사명을 완수한 바울



사도행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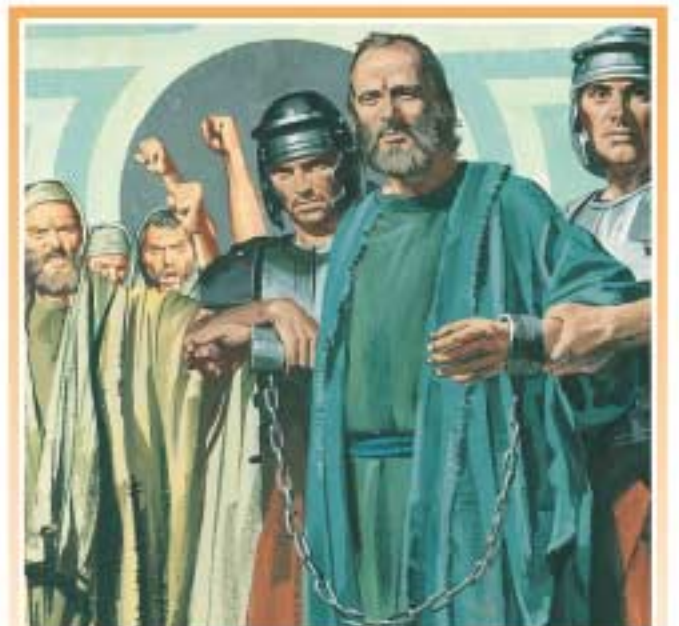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갈 때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데리고 갔습니다. 이 일로 유대인들은 화가 났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성전에서 끌어내고 때렸습니다.

사도행전 21:2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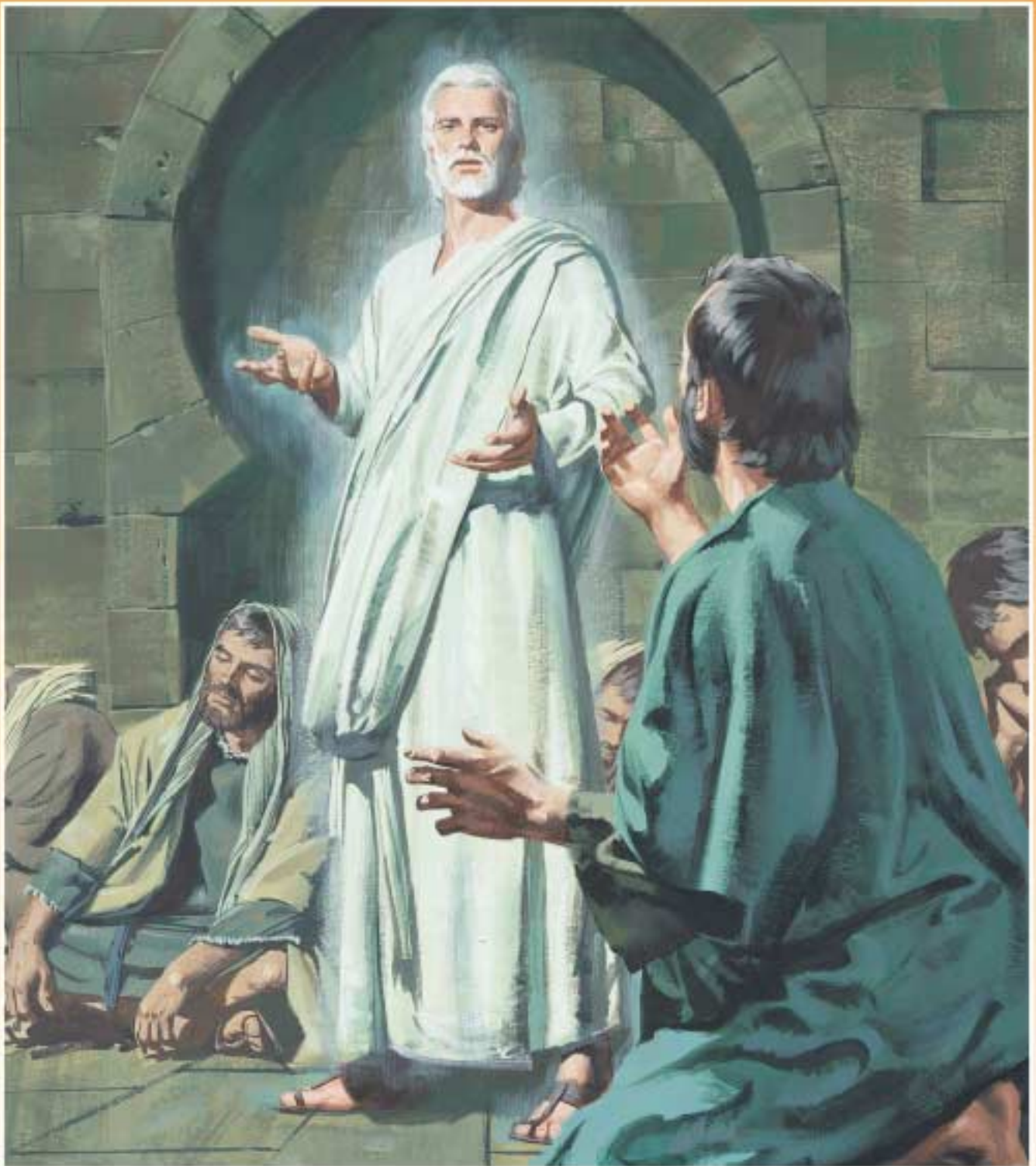
로마 군인들은 바울을 유대인들에게서 구해 냈으나 먼저 유대인들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는 선교사라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는 하늘에서 빛을 보았으며 구세주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21:31~40; 22:1~21



유대인들은 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소리를 질렀으며 그를 죽이고 싶어했습니다. 군인들은 그날 밤 바울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사도행전 22:22~30; 23:1~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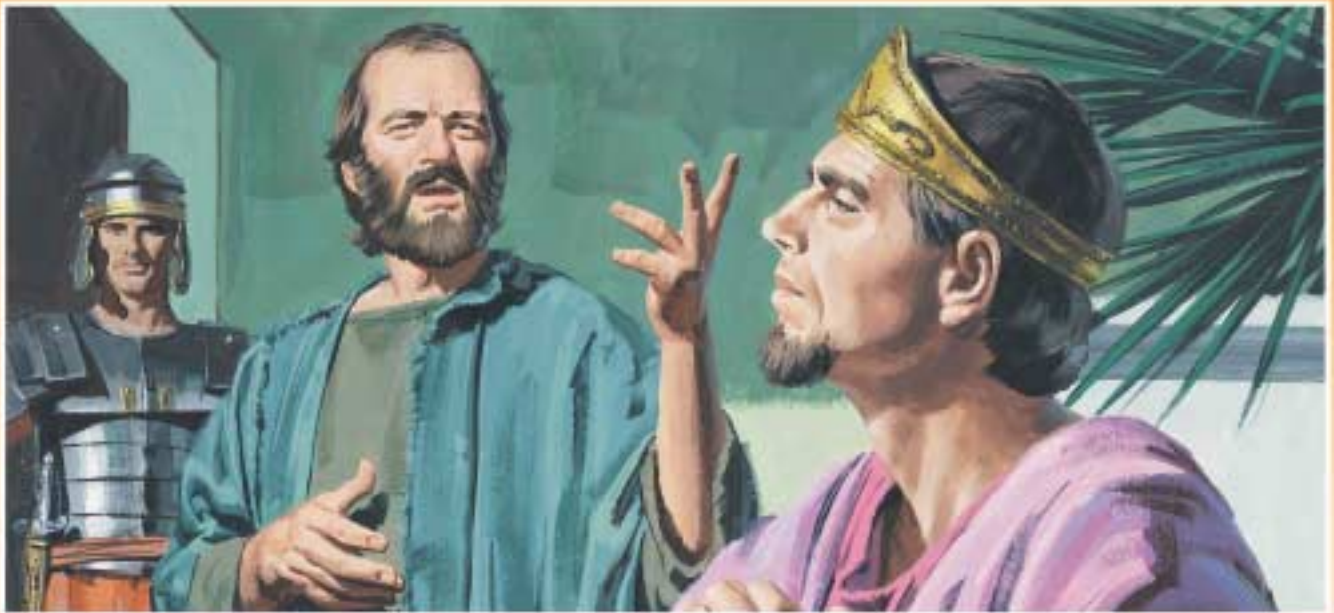


그날 밤, 구세주께서는 바울을 방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에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3:11



유대인들은 로마인들이 바울을 죽이기를 원했기 때문에 로마인들은 그를 아그립바 왕에게 보냈습니다. 아그립바 왕이 바울에게 무슨 일을 했느냐고 물었을 때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으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미워했다고 했습니다. 그는 심지어 그들을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는 하늘로부터 오는 빛을 보았으며 구세주의 음성을 들었고, 이제 그는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23:12~35; 25:13~23; 26:1~15



바울은 아그립바 왕에게 복음이 참되며,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그분이 자기에게 복음을 가르치라고 말씀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고 그분에 대해 가르쳤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를 미워했습니다.

사도행전 26:16~26



아그립바 왕은 바울이 말한 내용 때문에 예수님을 거의 믿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왕은 바울이 죽임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바울을 로마로 보냈습니다.

사도행전 26:27~32; 27:1~2



바울은 로마에서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보러 왔으며 복음에 대해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는 다른 여러 나라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이 편지들 가운데 많은 것이 신약전서에서 서신(편지)이라고 불립니다.

사도행전 28:16~31



바울은 자신이 죽임을 당할 것임을 알았으나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했고, 복음을 가르쳤으며, 선교 사업을 마쳤습니다.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았으며, 죽은 후에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디모데후서 4:6~8

하나님의 증인이 됩시다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
십이사도 정원회



헨리 비 아이어링 장로가 성장할 때 그의 지부 모임을 호텔에서 가졌다는 것을 알고 있었나요? 나중에는 모임을 그의 집에서 가졌습니다. 그는 학교에서 형제들과 함께 유일한 교회 회원이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의 증인으로서의 책임에 대해 배웠습니다. 그는 증인이 되는 것에 대해 우리를 가르쳐 줍니다.



모든 회원들은 침례의 물가에서 하나님의 증인이 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모든 회원들은 구세주께서 하신 것처럼 친절한 일을 하겠다는 성약을 맺었습니다.

사랑하고 증거하겠다는 성약의 힘은 세계 전역에서 회원들의 행동을 더 훌륭하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교회 회원들은 우리들의 삶에 대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하는 호기심 어린 사람들의 시선을 매일마다 무수히 받게 됩니다. 우리는 증인이 되겠다는 성약을 맺었기 때문에 복음이 어떻게 우리를 행복하게 해 주는지에 대해 증거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야기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얼마나 관심을 보이는가를 느끼는 것에 크게 좌우됩니다.

저는 다른 사람과 복음을 나누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 약속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들조차 언젠가는 우리에게 감사하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선교사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제 친구들을 방문해 달라고 여러 번 부탁했습니다. 선교사들이 거절 당했다고 들었는데 나중에 그 친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내용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자네가 자신에게 그토록 의미가 있는 것을 내게 나누어 주었다는 것에 대해 영광으로 생각하네.” 두 번째 약속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권할 때 여러분의 확신은 더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권할 때 우리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됩니다.

하나님과 성약을 맺은 우리는 각자 독특한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어떤 공통적인 확신(약속)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와 우리가 처한 상황, 그리고 심지어는 앞으로 우리에게 일어날 일들도 아십니다. 그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즉 우리의 구세주는 우리와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고통을 겪으셨으며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

1996년 10월 연차 대회 말씀에서

성전 카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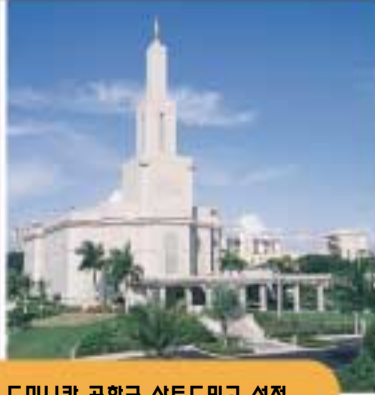
2003년에는 친구들 각 호마다 성전 카드가 실립니다. 잡지에서 성전 카드를 잘라 내어 두꺼운 종이에 붙이고 오려 내십시오. 성전의 중요성을 상기하기 위해 카드를 모으십시오.



엘라베마 버밍햄 성전

2000년 9월 3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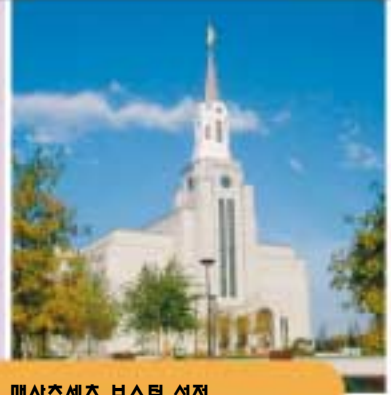
사진 촬영: 랜달 크로우



도미니카 공화국 산토도밍고 성전

2000년 9월 17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데이비드 닐



매사추세츠 보스턴 성전

2000년 10월 1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브라질 레시페 성전

2000년 12월 15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브라질 알레그레 성전

2000년 12월 17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마르코 안드레스



우루과이 몬테비데오 성전

2001년 3월 18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네브라스카 윈터퀸턴 성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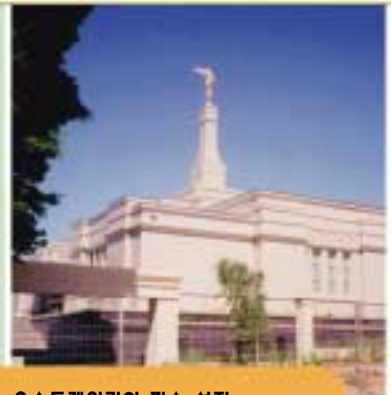
2001년 4월 22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사진 촬영: 내빈 리슨



멕시코 과달라하라 성전

2001년 4월 29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



오스트레일리아 퍼스 성전

2001년 5월 20일, 고든 비 힝클리 대관장이 헌납함